

紫霞 申緯와 清代 文人들의 交遊 연구(1)

— 교유의 종합적 회고와 翁方綱·翁樹崑 부자와의 翰墨緣

李炫壹*

I. 緒論

III. 翁方綱·翁樹崑父子와의 翰墨緣

II. 교유의 종합적 회고:

IV. 餘論

『題蒲船黃葉懷人圖』 읽기

• 국문초록

紫霞 申緯(1769~1847)가 활동했던 시기는 韓·中 문인들의 交遊가 매우 활발하던 시기였으며, 자하 스스로도 1812년 하반기에 進奏兼奏請使의 書狀官으로 직접 燕行에 참여하였다. 연행을 통해서 翁方綱을 비롯한 淸나라의 여러 문인들과 직접 교유하였고, 귀국 이후에도 使行을 떠나는 벗들을 통해 詩文書畫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또 자하가 남긴 시와 서화를 보고 서신으로 교유를 청하는 淸나라의 문인들이 하나둘 생겨나 한동안 이들과의 교유가 지속되면서 詩名이 중국에까지 퍼졌다.

우리에게 秋史 연구자로 잘 알려진 후지츠카 치카시(藤塚鄰, 1879~ 1948)는 『淸朝文化東傳の研究』에서 “『警修堂全藁』와 『警修堂焚餘錄』은 조선 시단이 낳은 훌륭한 저작일 뿐만 아니라 실로 조선과 淸나라의 문화 교류를 말해 주는 寶庫”라 평하였다.

자하의 『警修堂全藁』에는 淸나라 문인들에게 보낸 시와 벗들에게 지어 준 燕行別章이 적지 않게 수록되었으나, 談草나 산문으로 쓴 燕行錄이 전하지 않는 상태이고, 자하와 翁方綱과의 교유 역시 추사의 그늘에 가려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받았다. 다행히 최근에 문헌학과 연행 연구에 조예가 깊은 중진과 신진 연구자들의 알찬 성과가 발표되어 이 방면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 성균관대학교 한문교육과 부교수

필자는 이러한 성과들의 바탕 위에 먼저 李尙迪의 요청으로 자하의 아들인 申命準이 그려 준 「黃葉懷人圖」에 쓴 「題滿船黃葉懷人圖」에 주목하였다. 이 작품은 자하가 晩年에 그때까지 사귀었던 중요한 청나라 문인들과의 인연을 담은 長篇古詩로, 단락을 나누어 번역하고 관련 자료를 引證하여 交遊考의 序說로 삼았다.

그리고 翁方綱·翁樹崑父子와의 翰墨緣을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우선 寶蘇人의 念願이라 할 수 있는 『施注蘇詩』와 「天際烏雲帖」을 拜觀한 사실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지은 시들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어서 石墨書樓에서 의기투합한 王汝翰이 그려 준 자하의 小照와 여기에 쓴 翁方綱의 題詩, 자하의 和韻, 翁樹崑과 金正禧의 題詩를 살펴보고, 아울러 귀국 이후 翁수곤이 보내온 그의 小照에 쓴 자하의 題詩를 읽어 보았다. 또 紫霞가 그린 墨竹과 翁方綱이 써서 보내 준 ‘警修堂’과 ‘淸風五百間’ 扁額과 관련한 시들을 검토해 보았다. 또 자하가 翁수곤에게 선물 받은 元代 楊維禎의 山水畫의 존재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찾아 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百濟의 옛 터에서 출토된 기와로 만든 벼루인 鴛鴦鳥이 자하에게서 柳最寬으로, 유취관에게서 翁수곤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추적하고, 翁수곤이 만든 원앙석의 拓本을 입수한 韓培永의 요청으로 다시 紫霞가 이를 기념하는 시를 짓는 과정을 기술하였다.

이처럼 자하와 청나라 문인들의 교유는 翰墨을 매개로 結緣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한묵의 競演場이기도 했다. 연행과 청나라 문인들과의 교유는 18세기 후반 北學이 탄생한 공간에서 文藝를 매개로 교류하는 곳으로 성격이 점차 바뀌어 갔다.

주제어 : 신위(申緯), 이상적(李尙迪), 翁方綱(翁方綱), 翁수곤(翁樹崑), 연행(燕行)

I. 緒論

丙子胡亂(1636~1637)과 明의 멸망(1644) 이후 냉담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과 淸나라 文人들의 交遊는 淸의 中原 지배가 공고해진 뒤부터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여, 湛軒 洪大容(1731~1783)과 後四家인 雅亭 李德懋(1741~1793), 冷齋 柳得恭(1748~1807), 貞菴 朴齊家(1750~1805), 薑山 李書九(1754~1825) 이후 크게 활기를 띠게 되었다.

1765년 三節年貢兼謝恩使에 子弟軍官으로 동행할 수 있었던 湛軒은 燕行을 통해 淸나라의 실상을 목격하고, 江南 출신의 지식인들과 교유하면서 사상에 큰 변화를 일으켜 ‘北學’을 주장하게 되고 주변의 벗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¹⁾ 貞菴는 北學論을 集大成하여 『北學議』를 저술하였고, 淸代의 거물급 학자·문인들과 교유한바, 그 아들인 朴長菴이 엮은 『縞紵集』에는 이들이 貞菴에게 보낸 詩文이 풍성하게 실려 있다.²⁾

1776년 告訃奏請兼陳奏使의 일원이었던 柳琴이 燕行에 가져간 『韓客巾衍集』이 淸나라 문인들의 賞讚을 받은 것이 조선 지식인 사회에 空前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뒤에는, 사대부는 물론 閭巷人들까지 자신의 시집을 가져가거나 知人 편에 보내서 청나라 문인에게 序나 評批를 받는 것이 유행하여, 19세기 후반까지도 이러한 풍조가 성행하였다.

紫霞 申緯(1769~1847) 역시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활동했고, 1812년 하반기에는 進奏兼奏請使의 書狀官으로 직접 燕行에 참여할 수 있었다. 燕京에서 翁方綱을 비롯한 여러 淸나라의 문인들과 직접 교유하였고, 귀국 이후에도 使行을 떠나는 벗들을 통해 詩文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紫霞가 남긴 시와 글씨를 보고 서신으로 교유를 청하는 청나라의 문인들이 하나둘 생겨나 한동안 이들과의 교유가 지속되었다.

1) 湛軒과 淸代 文人들의 사검과 그 의의에 대해서는 김명호, 『홍대용과 항주의 세 선비: 홍대용의 북경 기행 새로 읽기』, 돌베개, 2020에 매우 상세하고 정확하게 정리되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貞菴의 『北學議』와 淸나라 인물들과의 교유에 대해서는 안대희 교감역주, 『(정본완역) 북학의』, 돌베개, 2013 및 「楚亭 朴齊家の 燕行과 일상 속의 국제교류」, 『東方學志』 145, 延世大學校 國學研究院, 2009 참조.

紫霞의 시집인 『警修堂全藁』의 『奏請行卷』은 燕行 시기에 지은 시를 모은 小集이며, 그 밖의 小集에도 청나라 문인들에게 보낸 시와 벗들에게 지어 준 燕行別章이 적지 않게 수록되었다. 여기에 『續修四庫全書·集部』와 『清代詩文集彙編』에서 청나라 문인들이 紫霞에게 직접 보내거나 紫霞에 대해서 읊은 詩를 찾아내 紫霞詩와 아울러 번역만 해도 책 한 권 분량은 될 것이다.

다만 紫霞의 경우 談草나 산문으로 쓴 燕行錄이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 상대적으로 燕行이나 韓·中 지식인의 交遊史에서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紫霞와 清代 문인들의 교유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翁方綱·翁樹崑父子와의 교유 역시 秋史의 그늘에 가려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받았었다.

20세기 들어서 紫霞와 清代 문인들의 교유에 대해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진 학자는 일본의 후지즈카 치카시(藤塚鄰, 1879~1948)였다. 藤塚鄰은 『清朝文化東傳の研究』의 第二 歸國篇 第四章 ‘翁覃溪와 阮堂’의 第二節 ‘覃溪와 阮堂의 親舊 申紫霞·柳貞碧·李六橋’에서 “방대한 분량의 『警修堂全藁』와 『警修堂焚餘錄』은 조선 詩壇이 낳은 훌륭한 저작일 뿐만 아니라 실로 조선과 청나라의 문화 교류를 말해 주는 寶庫”라 평하였다.³⁾ 다만 실제로 기술한 부분은 『施注蘇詩』와 「天際烏雲帖」을 拜觀한 사실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면서, “자하가 맺은 학연은 넓고 광범위해서 이 논문에서 도저히 다 소개하지 못할 정도이다. 이에 대해서는 훗날 다른 논문에 발표할 것을 약속한다.”고 하였으나,⁴⁾ 실제로 발표된 논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후지즈카 이후 한동안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진 한국 연구자는 거의 없었다. 사실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다. 나라 전체가 여러 차례의 큰 정치적 사건에 휘둘렸고, 무엇보다 한문 문헌에 접근할 수 있는 젊은 연구자의 숫자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紫霞 연구를 거의 전담하다시피 했던 孫八洲 선생의 저작에서도 이 주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3) 藤塚鄰, 『清朝文化東傳の研究』, 國書刊行會, 1975, 151~153면. 藤塚鄰의 저작은 현재 두 종류의 번역본이 있는바, 두 책의 면수를 모두 제시하기로 한다. 朴熙永 譯, 『추사 김정희 또다른 얼굴』, 아카데미하우스, 1994, 169면; 윤철규·이충구·김규선 옮김, 『秋史 金正喜 研究』, 과천문화원, 2009, 269면.

4) 朴熙永 譯, 『추사 김정희 또다른 얼굴』, 아카데미하우스, 1994, 170면; 윤철규·이충구·김규선 옮김, 『秋史 金正喜 研究』, 과천문화원, 2009, 270면.

다행히 금세기 들어서 琴知雅가 『奏請行卷』을 중심으로 翁方綱과의 文墨緣을 조명하는 논문을 발표하였고, 신일권은 자하의 연행 이후 시를 고찰하는 논문의 한 章에서 청나라 문인들과의 교유를 정리하는 데 힘썼다.⁵⁾ 또 정은주는 『日省錄』과 『承政院日記』, 貞碧 柳最寬(1788~1843)의 『燕行路程記』 등에 근거하여 紫霞가 書狀官으로 참여한 陳奏兼奏請使의 일정을 상세히 조사하였으며, 『奏請行卷』뿐만 아니라 다른 小集들을 참조하여 紫霞와 淸나라 문인들의 교유 양상을 정리하였으며, 아울러 紫霞와 동행했던 貞碧 柳最寬의 교유 양상도 추적하여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⁶⁾ 林映吉은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紫霞가 燕行 당시에 직접 대면을 통해 맺은 교유와 귀국 이후 서신을 통해 확장한 교유로 나누어 고찰한바, “19세기 초 한중 문인 교유의 흐름은 ‘김정희·신위와 그 교유자-옹방강과 그 동인’이라는 큰 줄기가 형성된 바탕 위에 별개의 몇몇 집단 간 교유가 병존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였다.⁷⁾ 紫霞와 淸代 문인들의 交遊網을 총정리하였기 때문에 이 주제에 접근하기 위한 중요한 地圖를 작성해 준 셈이라 할 수 있다.

박현규는 翁方綱이 所藏했던 「天際烏雲帖」과 여러 摹寫本을 자세히 소개하였으며, 紫霞가 이 帖과 인연을 맺은 과정과 好古堂에서 紫霞의 跋을 붙여서 模刻한 「天際烏雲帖」까지 추적하여 그 의의를 밝혔다. 또 당시 조선에 유행하던 「天際烏雲帖」 模刻本으로 『快雪堂法帖』과 徽州 程氏 刻本이 있었던 것까지 고증하고 있다.⁸⁾

김기완은 ‘거주지 재현 예술’이라는 관점에서 한·중 교유 과정에서 오고간 詩畫를 분석하여 ‘집’을 매개로 이국의 벼를 회억하는 문화 관행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연구하면서 紫霞의 사례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⁹⁾ 또 추사 일파의 肖像畫에 대한 題詩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汪汝翰이 그린 「紫霞小照」와 관련된 시들을 중요한 사례 중 하나

5) 琴知雅, 「朝鮮 申緯의 『奏請行卷』 研究-燕行과 翁方綱과의 文墨緣을 중심으로」, 『洙上古典研究』 21, 洙上古典學會, 2005 및 신일권, 「신위의 청나라 연행 이후에 나타난 시의 특징-고증적 성향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64, 한국문화학회, 2013, 8~29면 참조.

6) 정은주, 「1812년 진주검주청사행과 한중목연-자하 신위와 정벽 유취관을 중심으로」, 『다산과 추사, 정벽 유취관』, 추사박물관, 2015.

7) 林映吉, 「紫霞 申緯와 청 문단의 교유 양상」, 『大東文化研究』 117,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2021, 131면.

8) 박현규, 「청 翁方綱 소장 蘇軾 「天際烏雲帖」과 조선 申緯의 結緣」, 『한중인문학연구』 12, 한중인문학회, 2004.

9) 김기완, 「한중교유와 19세기 거주지 재현 예술」, 『韓國漢文學研究』 51, 韓國漢文學會, 2013.

로 언급하였다.¹⁰⁾

최근에 박철상은 紫霞와 翁方綱의 交遊를 전면적으로 고찰한 논문에서 秋史가 지어 준 餞別詩의 의미를 자세히 분석하고, 『施注蘇詩』, 「天際烏雲帖」, 「化度寺邕禪師塔銘」 등을 拜觀한 일에 대해 기술하고, 翁方綱의 詩論을 계승한 점, 紫霞의 印章에 끼친 翁方綱의 영향 등을 고찰하였다. 특히 紫霞가 翁方綱을 애도하며 쓴 挽詩의 原稿本을 처음 소개하고,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紫霞가 吳嵩梁에게 보낸 편지의 전문이 인용되고 있어 紫霞 연구자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성과였다.¹¹⁾

그리고 해외 학자들 중에서 臺灣에서 공부하고 싱가포르에서 활동 중인 학자인 衣若芬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天際烏雲帖」과 조선 후기 문인들의 ‘東坡熱’을 폭넓게 다룬 논문의 한 節을 ‘申緯與翁方綱’으로 하여 申緯와 翁方綱의 교유를 상당히 비중 있게 서술하였다.¹²⁾

이상 文獻學이나 燕行, 詩·畫의 교섭 양상 등에 깊은 蘊蓄이 있는 분들이라 필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글은 韓·中 文人들의 交游網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보다 紫霞詩를 交游網 속에서 더 잘 이해하려는 의도로 쓴 것이다. 최근에 새로 발견되었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한 부분도 있지만, 『警修堂全藁』에 실린 작품들을 중심으로 일단

10) 김기완, 「추사 일파의 초상 題贊 운문 연구」, 『洌上古典研究』 72, 洌上古典研究會, 2020; 「추사 일파의 초상 제찬(題贊) 운문 연구 (2)-외모기술과 초상화관(肖像畫觀)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52, 한국고전학회, 2021.

11) 박철상, 「紫霞 申緯의 燕行과 翁方綱의 영향」, 『韓國漢文學研究』 75, 韓國漢文學會, 2019.

12) 衣若芬, 「樓前紅日夢裏明: 翁方綱藏「天際烏雲帖」與朝鮮王朝「東坡熱」」, 『書藝東坡』, 上海古籍出版社, 2019 참조. 다만 162면에서 申緯의 『崑緣錄』을 翁方綱의 『復初齋詩集』의 小集인 『崑緣卮』을 본받은 것이라 주장하면서 「天際烏雲帖」의 또 다른 이름인 「崑緣帖」과 연관 지은 것은 오해의 여지가 있다. 이는 『崑緣錄』의 序에서 紫霞가 “「天際烏雲帖」, 亦曰「崑陽帖」, 余之書髓在倚柱, 詩盟在寶蘊, 神崑之游, 如踐宿諾, 日錄, 詩卷, 皆署以崑緣.”라 말한 것과 그 끝에 붙인 시인 「再題崑緣錄」九首之一의 “崑緣錄卽崑緣草, 一例樓前天際情.”와 그 自註인 “『復初齋集』, 題「天際烏雲帖」詩, 每爲九首, 前五首, 卽次帖中原韻, 後四詩, 不知何所取韻也. 後閱張伯雨集, 知此四首之韻, 本出於虞道園耳. 『復初齋』有「崑緣草」耳.”(『叢刊』 291, 132d) 등에 牽引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의 역사와 故實을 잘 모르는 외국 학자들이 이 논문만 읽으면 오해할 수 있는데, 紫霞의 『崑緣錄』의 ‘崑’은 본디 高麗 수도 開城의 鎮山인 崑岳(松岳山)에서 따온 것으로, 개성 기행 詩集이다. 平山 申氏의 始祖인 申崇謙(?~927)은 後百濟 甄萱과의 전투에서 高麗 太祖 王建을 살리기 위해 金樂과 함께 奮戰 끝에 전사한 高麗의 開國功臣으로, 紫霞는 高麗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

정리해 보려고 한다.

먼저 紫霞의 작품 중에서 淸나라 문인과의 교유를 가장 자세히 담고 있는 「藕船의 黃葉懷人圖」에 쓰다 題藕船黃葉懷人圖」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한다. 「黃葉懷人圖」는 藕船 李尙迪이 紫霞의 큰아들인 申命準에게 그려 달라고 부탁하여 완성한 그림이기도 하다.

Ⅱ. 交遊의 回顧: 「題藕船黃葉懷人圖」 읽기

이 작품은 전체 80句로 이루어진 長篇으로 紫霞가 이 시를 지을 때까지 교유한 중요한 청나라 문인들을 망라하여 읊고 있어, 이 한 편만 읽어도 자하가 평생 교유했던 청대 문인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壬辰年(1832) 10월에 지었으며, 단순히 청대 문인들과의 교유에 대한 정보만 취하고 버릴 수 없는 작품이다. 譯官이라는 직업을 최대한 활용하여, 당시 淸代 문인들과의 교유를 주도했던 藕船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후배 시인에게 자신의 老益壯을 과시하기 위해 공력을 많이 들였다. 紫霞 만년 대표작 중의 한 편이라 할 수 있으며, 시인의 교유를 다루는 일련의 논문의 序曲으로 삼음이 마땅하다. 자하는 사림의 비중을 따라 분량을 다양하게 안배하였는데, 내용의 흐름에 따라 모두 열세 단락으로 나누어 읽어 보도록 한다.

「藕船의 「黃葉懷人圖」에 쓰다 題藕船黃葉懷人圖」

<1> 藕船이 「黃葉圖」를 손에 쥐고 와서는
나에게도 그리는 사람 있나 물어보네.
나 또한 그리운 사람 있고 더 애뜻해
이십 년 세월 동안 黃葉 지는 가을 되면 아련해졌지.
藕船手持黃葉圖, 問我亦有懷人無.
我亦懷人懷更苦, 廿載黃葉秋模糊.

첫 4귀는 序詞에 해당한다. 李尙迪이 그리워하는 (淸나라) 문인이 있냐고 물어 보기에 자신 또한 가을이 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답변하면서, 길고 曲折한

사연들을 차례대로 풀어나가는 계기로 삼고 있다. 여기서 李尙迪의 「懷人詩序」를 검토해 보자.

내가 蔣藏園(蔣士銓)을 본받아 懷人詩 약간 편을 짓고, 申小霞 上舍에게 「黃葉懷人圖」를 그려 달라고 부탁했다. 黃葉이 어찌 사람의 일에 간여할 것인가? 슬픈 宋玉의 글과 黯然한 江淹의 녀이 종이 가득 蕭蕭한 가을 소리를 낸다.¹³⁾ 詩로 끝마치지 못한 翰墨緣을 잇고, 그림으로 詩에서는 못 다한 뜻을 보완하였으니, 여러 군자들은 이 詩를 읽고, 이 그림을 감상하며, 반드시 蒼葭와 白露 사이에서 그 시대를 논할 것이리라.¹⁴⁾

주지하듯이 韓國漢詩史에서 蔣士銓의 「懷人詩」를 본받아 五言 六句로 된 懷人詩 양식을 채택하여 청나라 문인들을 그리워하는 대량의 연작시를 지은 최초의 시인은 朴齊家이다.¹⁵⁾ 정말 그리워서 지었고, 교유한 이들에게 보여 주려고 지은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交遊網을 조선의 문인들에게 과시하려는 마음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李尙迪 역시 이 시에서 儀克中, 周揚之, 雷文輝, 李元慶, 秀琨, 李榮春, 慶照, 郭邦彥, 李雲衢, 劉元齡, 李榮竹, 夏德炳, 鄭陞, 劉喜海, 韓韻海, 陳克明, 阮常生, 阮福, 吳嵩梁, 姚衡, 余垣, 馬書奎, 葉志誥, 葉琛, 葉豐, 黃釗, 陳文述, 丁泰 등 모두 28명을 읊고 있다.¹⁶⁾

<2> 乾隆·嘉慶 연간의 風雅 직접 목도하니
이때는 皇都에 文儒들이 가득하여,

13) 蕭統 編, 李善 注, 『文選』 卷33, 宋玉, 「九辯」五首之一: “悲哉秋之爲氣也! 蕭瑟兮草木搖落而變衰.” (上海古籍出版社 標點本, 1997, 1533~1534면) 및 같은 책 卷16, 江淹, 「別賦」: “黯然銷魂者, 唯別而已矣!” (上海古籍出版社 標點本, 1997, 750면) 참조.

14) 『恩誦堂集·詩』 卷3, 「懷人詩序」: “予倣蔣藏園作懷人詩若干篇, 屬申小霞上舍寫「黃葉懷人圖」. 黃葉何預人事? 悲哉宋玉之詞, 黯然江郎之魂, 滿紙上蕭蕭作秋聲矣. 詩以續翰墨未了之緣, 畫以補詩中不盡之意. 諸君子誦其詩, 讀其畫, 必將論其世於蒼葭白露之中耳.” (『叢刊』 312, 180c)

15) 정일남, 「朴齊家 懷人詩 研究」, 『韓國漢文學研究』 36, 한국한문학회, 2005 및 박종훈, 「조정 박제가의 懷人詩 小考」, 『한국언어문화』 30, 한국언어문화학회, 2006 참조.

16) 「續懷人詩」, 「西笑篇」에서 또 읊었다. 이 작품들에서 읊은 清代 文人들에 대해서는 李春姬, 『19世紀 韓·中 文學交流』, 새문사, 2009, 87면에 작성한 일람표가 많은 참조가 된다.

蘇齋와 蘇室에 詩髓를 여쭙고
 蘇集과 蘇帖 보고 寶蘇에 참여했지.
 書家の 秘鑰는 用筆에 있다 알려 주시니
 ‘內密外縱’을 모범으로 전해 주셨네.
 紅豆는 筑을 치며 노래하고 날마다 미친 듯이 마셔땀고
 戈生과 葉生과 汪君도 함께 했지.
 汪君은 傳神하는 솜씨로 날리던 이라
 흥이 올라 山澤에 어울리는 파리한 내 모습을 기꺼이 그려 주었지.
 “篆香은 특별히 이 사람 위해 補하노라” 하셨으니
 周卯 長官도 이런 일 있으셨나?
 蘭兄과 蕙嫂는 밥과 닭 갖추어서
 하녀들 부를 틈도 없이 몸소 식탁 털어 주셨지.
 風雅及見隆嘉際, 時則皇都盛文儒.
 蘇齋蘇室叩詩髓, 蘇集蘇帖參寶蘇.
 書家秘鑰啓用筆, 內密外縱傳楷模.¹⁷⁾
 紅豆歌筑日狂飲, 戈生葉生汪君俱.
 汪君馳譽傳神筆, 乘興肯畫山澤癡.
 篆香特爲斯人補, 周卯長官有此乎.
 蘭兄蕙嫂具雞黍, 拭桌未暇丫鬟呼.

<2>는 제5귀부터 제18귀까지의 열네 귀로 마지막 귀 뒤에 “이상은 蘇齋에서의 雅集을 기록한 것이다.(以上記蘇齋雅集也.)”라는 自註를 달았다. 蘇齋에서 있었던 翁방강-옹수곤 부자와의 인연을 중심으로 翁방강의 사위인 戈寶樹, 제자인 葉志詵, 문객인 汪汝翰과의 정겨운 사귄에 대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날마다 노래하고 狂飲하는 翁수곤의 모습이나 자하를 위해 식탁을 차리는 翁수곤 부부의 모습은 다른 기록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모습이다.

“周卯長官有此乎” 뒤에는 “이 말은 覃溪가 내 小照에 써 준 시에 있다.(語在覃溪題余小照詩中.)”는 自註를 달았다. 汪汝翰이 그려 준 이 小照와 翁방강의 題詩에 대해서는 翁方綱-翁樹崑父子와의 翰墨緣을 다룬 뒷 章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언급할 예정이다. “書家秘鑰啓用筆, 內密外縱傳楷模.”은 翁방강이 일러준 用筆의 秘訣을 언급한

17) 內密: 底本에는 ‘內蜜’로 되어 있으나 東洋文庫本 『警修堂詩選』에 의거하여 바로잡음.

것으로, 옹방강은 자하에게 서법의 비결로 ‘外似放縱, 內窠嚴密’을 적어 주었다고 한다.¹⁸⁾

戈寶樹와는 그 뒤로 별다른 교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葉志誥를 위해서는 ‘子午泉’을 읊은 시가 남아 있으며, 汪汝翰은 紫霞가 燕行에서 돌아온 이듬해인 癸酉年 (1813)에 당시 谷山府使로 재임 중이던 紫霞에게 明代에 書畫로 이름을 날린 孫克弘 (1532~1611)이 그린 그림의 倣作을 보내주었고, 紫霞는 그 그림에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題詩를 짓기도 하였다.¹⁹⁾

<3> 賢王께선 자신 낮춰 손님을 敬愛하시니
鏡天花海 누각에서 붉은 용단 깔아 주셨네.
그 어찌 알았으랴, 屏障에서 墨緣을 證驗하니
우연히 거리에 남긴 글씨가 인연 됐네.
中年 이후 哀樂으로 음악 소리 민감하니
하물며 잔치 열고 「驪駒」를 부름에랴!²⁰⁾
賢王折節敬愛客, 鏡天花海紅氍毹.
那知墨緣證屏障, 偶然落筆田盤衢.²¹⁾
中年哀樂感絲竹, 況是開筵唱驪駒.

18) 『戊寅錄』, 「覃溪以今年正月廿七日亡訃至, 以詩悼之五首」之四: “枕中八字傳鴻寶, 談草披看淚漬箋.”(『叢刊』 291, 88cd) 자하는 自註에서 “覃溪以‘外似放縱, 內窠嚴密’八字授余.”라 하였다.

19) 『蘓齋續筆』, 「子午泉詩, 遙寄葉東卿(并序)」: “紀文達(昀)舊宅, 今屬葉東卿有. 所謂子午泉, 泉味鹹, 一日十二時中, 惟子初午正二時, 清脉湧出, 甘冽異常, 過時焉則依舊鹹也. 玉壺李尚書(肇源)之使還也, 東卿諄託玉壺遍求東人題詠, 余亦有舊於東卿, 爲賦此. 嵐老葉公泉作主, 煥乎文字發祥時. 畫方生寂潮相似, 夜到於中氣至之. 慈石引箴原有理, 尼珠在濁自含知. 煎茶滌研重携手, 萬卷樓頭問後期.(原註: ‘東卿有八萬卷書樓.’)(『叢刊』 291, 74d) 葉志誥이 조선의 문인들에게 子午泉을 읊은 시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林映吉, 「玉壺 李肇源의 『燕薊風煙』과 한중 문인 교유」, 『漢文學論集』 57, 槿域漢文學會, 2019, 238~242면에 그 경위가 자세히 밝혀져 있다. 『清水芙蓉集』, 「題汪載青(汝翰)寄惠倣孫雪居畫幀」: “蘓齋又結一重緣, 合景圖成萬里傳. 綠野長春知鹿壽, 青山不老驗松年. 溪風瑟瑟水仙冷, 梅雨條條紅豆然. 我讀離騷如讀畫, 美人香草思纏綿.”(『叢刊』 291, 30c)

20) 『漢語大詞典』: 逸『詩』篇名. 古代告別時所賦的歌詞. 『漢書·儒林傳·王氏』: “謂歌吹諸生曰: ‘歌「驪駒」.’” 顏師古注: “服虔曰: ‘逸『詩』篇名也, 見『大戴禮』.’ 客欲去歌之.’ 文穎曰: ‘其辭云“驪駒在門, 僕夫俱存; 驪駒在路, 僕夫整駕”也.’” 後因以爲典, 指告別.

21) 偶然: 底本에는 ‘隅然’으로 되어 있으나 東洋文庫本 『警修堂詩選』에 의거하여 바로잡음.

<3>은 第19句부터 第24句까지의 여섯 句로 호탕한 蒙古人인 貝勒 丹巴多爾濟와의 奇緣을 서술하고 있다. ‘偶然落筆田盤衢.’ 뒤에 “내가 盤山の 酒樓에서 주인에게 써 준 것인데, 丹貝勒이 陵에 참배하고 오는 길에 보고 빼앗아 와서 이미 屏幃에 붙어 있었다. 이날 海甸에 초청한 것도 또한 이 墨緣이 있기 때문이었다.(余於盤山酒樓, 有書贈主人者. 丹貝勒朝陵歸路見之, 豪奪而來, 已入屏幃. 是日海甸相邀, 亦以此墨緣.)는 自註가 있어서 貝勒이 紫霞에게 응송한 대접을 한 이유가 紫霞의 글씨에 있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奏請行卷』에 수록된 아래의 詩를 읽으면 더욱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패륜이 나에게 부채에 시를 써달라고 하기에 지어 주다 貝勒求余扇詩」

바람결에 法曲 소리 화려한 자리 위로 지나고
만세 소리 우렁차고 비둘기 날려 보내는 시절이라.
仙侶들은 느긋하게 샷대를 짓고
御厨에선 계속하여 산해진미 내온다.
貪歡하다 우연히 훌륭한 公子 만나
먼 길 온 사람을 위로해 주서 덕택 실컷 입었구나.
가장 훌륭한 西園의 무대 위 밤 공연
‘거울 하늘 꽃 바다’ 속 꿈꾸는 몸이런가.²²⁾
風飄法曲度華茵, 萬歲聲長放鵲辰.
仙侶逶迤同蘊漿, 御厨絡繹幾分珍.
貪歡偶值佳公子, 飽德何安遠道人.
最是西園飛蓋夜, 鏡天花海夢中身.

紫霞는 自註에서 다음과 같이 이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잔치에서 丹巴多爾濟 貝勒은 나를 후하게 대접하여, 매번 皇上께서 음식을 나누어 주실 때에는 손수 양고기를 잘라 낙타 고기와 함께 권하였다. 잔치가 끝나자 나를 海淀의 別墅로 초대하였는데, 인도하여 後堂에 이르자 앞에 歌舞하는 다락이 있었고, ‘鏡天花海’라는 편액이 붙어 있었다. 나를 위해 연극 공연

22) 『奏請行卷』(『叢刊』 291, 19b).

을 해 주었는데, 『桃花扇』에 이르러 音調가 슬프고도 아름다워 사람을 감동시켰다.²³⁾

『桃花扇』은 이름이 같은 다른 작품이 아니라면 孔子의 64대손인 孔尙任(1648~1718)의 『桃花扇』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작품은 南明 弘光 政權의 興亡을 배경으로 실존 인물이었던 復社 문인 侯方域(1618~1655)과 南京 名妓 李香君의 結緣과 離合을 그린 작품이다. ‘桃花扇’이라는 제목은 李香君이 貞節을 지키기 위해 항거하다가 머리를 부딪치자 핏물이 부채에 튀었는데, 이를 두 사람의 결연을 도와준 楊文驄이라는 인물이 가지를 그려 넣고 복사꽃으로 그려낸 것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²⁴⁾ 자연히 그 내용에 明나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을 수 없었다. 康熙帝도 『도화선』 공연을 즐겨 보고 弘光帝를 반면교사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전하는가 하면,²⁵⁾ 孔尙任이 면직된 것이 이 작품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한다.²⁶⁾ 몽고 귀족이 자신의 저택에서 외국인에게 이 작품을 보여 준 것은 특이한 일로 생각된다. 이때 중국의 연극은 오페라나 뮤지컬 같아서 주요한 대사는 모두 노래로 불렀다고 한다.²⁷⁾

<4> 한 시대의 偉人 松湘浦는
東關과 西苑에서 환대를 해 주셨네.
使臣을 염려하여 약물을 주시고
산에 들어가는 부적으로 범 虎字를 써 주셨네.
一代偉人松湘浦, 東關西苑奉歡娛.

-
- 23) “宴筵，丹貝勒向余款厚，每克食之頃，手割羊，調略以勸之。及宴罷，邀過海淀別墅，引至後堂，前有歌舞之樓，榜曰鏡天花海，爲余演劇。至『桃花扇』，音調悲豔動人。”
- 24) 공상임 지음, 이정재 옮김, 『도화선(桃花扇)』, 을유문화사, 2008, 「해설」, 645~652면 참조.
- 25) 孔尙任 著, 謝雍君·朱方遒 評注, 『桃花扇』, 中華書局, 2020, 「前言」, 4면: “此劇一經定稿上演, 馬上引起轟動。‘長安之演『桃花扇』者, 歲無虛日 …… 笙歌靡麗之中, 或有掩袂獨坐者, 則故臣遺老也, 燈炮酒闌, 唏噓而散。’連康熙帝都被驚動了, ‘己卯(1699)秋夕, 內侍索『桃花扇』本甚急(『桃花扇本末』), 他不僅閱讀劇本, 還館看演出, 每演到「設朝」「選優」出時, 就會皺眉頓足, 感慨: ‘弘光弘光, 雖欲不亡, 其可得乎?’ 以此自警。”
- 26) 공상임 지음, 이정재 옮김, 『도화선(桃花扇)』, 을유문화사, 2008, 「해설」, 647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상세한 내용은 徐愛梅, 『孔尙任和『桃花扇』新論』, 山東大學出版社, 2013, 160~169면 참조.
- 27) 중국 연극의 특징과 『桃花扇』 번역본은 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윤지양 교수님께서 조언해 주신 것이다. 깊이 감사드린다.

且置藥物念行李，虎字相贈入山符。

<4>는 第25句부터 第28句까지의 네 句로 역시 蒙古人으로 兩江總督, 兩廣總督, 戶部尙書, 吏部尙書, 兵部尙書, 武英殿大學士 등을 역임한 湘浦 松筠(1752~1835)이 베푼 厚意를 추억한 것이다. 마지막 句 뒤에는 “湘浦는 손수 草書로 虎字를 썼는데, 크기가 사방 한 길에 넘었다. 나에게 주며, ‘이걸로 충분히 상서롭지 못한 일을 예방할 것입니다’라 하였다.(湘浦手書草虎字, 字過方丈, 贈余曰: ‘此足以除不祥.’)”는 自註를 달아 松筠의 각별한 배려를 알려 주고 있다.

<5> 蘭畦尙書는 어찌 그리 나를 좋아해 주셨는지
班行에서 멀리 보고 眉鬚를 마음에 들어 하셨지.
스스로 부끄러우니, 내가 어찌 참 名士랴!
편지 보내 초청해 주시니 정말 뜻밖이었다네.
中書는 內齋에 머물게 하고 談藝를 하었는데
木瓜와 佛手柑은 쟁반 위에서 향긋했지.
孝子는 中書의 病에 허벅지 살을 베어 올렸으니
尙書의 忠孝가 모범이 되었으리라.
蘭畦尙書何好我, 班行遙見愛眉鬚.
自慚我豈眞名士, 折簡招邀誠不虞.
中書內齋留談藝, 木瓜佛手香盤盂.
孝子刲股中書病, 尙書忠孝詒厥謨.

<5>는 第29句부터 第36句까지의 여덟 句로 金光悌-金宗邵(字 載園)·金勇(字 近園)-金震(字 簣伯) 三代와의 인연과 逸話を 읊은 것이다. 蘭畦尙書는 金光悌(1747~1812)로 당시 現任 刑部尙書였다. ‘中書’에 대해서는 “蘭畦의 哲嗣인 載園이다.(蘭畦哲嗣載園.)”고 自註를 달아 설명하고 있으며, ‘孝子’에 대해서는 “簣伯”이라 自註를 통해 字를 밝혔다. 紫霞가 金光悌의 저택을 찾아갔을 때, 金勇의 아들 金震은 위독한 부친을 살리기 위해 허벅지를 베어 바친 뒤 앓아누운 상태였다고 한다. 金光悌 子孫의 이름과 字는 金光悌가 세상을 떠난 뒤 金震이 보낸 「天鹿圖」에 紫霞가 쓴 題詩의 自註에서 확인할 수 있다.²⁸⁾ 金光悌와의 인연은 朱鶴年과의 만남을 읊은 다음 단락에서도 이어진다.

<6> 野雲은 三朱의 한 사람으로
畫名과 任俠이 燕都를 기울였는데
나를 찾아 玉河館 온 것이 어찌 그리 늦었나.
만나자마자 잠깐 사이 이별하니
夕陽 黃昏 읊은 李商隱의 詩句 적으며
글자마다 눈물 흘러 談草를 적셨었지.
野雲三朱之一也, 畫名任俠傾燕都.
訪我何晚玉河館, 相逢是別立斯須.
夕陽黃昏西崑句, 字字淚落談草濡.

여섯 번째 단락은 第37句부터 第42句까지의 여섯 句로 朱鶴年과의 만남을 매우 정감 있게 서술하고 있다. 第37句 뒤에 “法梧門(法式善)은 三朱山人詩가 있는데, 素人和 津里와 野雲을 말한 것이다.(法梧門, 有三朱山人詩, 謂素人, 津里及野雲也.)”라는 自註로 ‘三朱’의 의미를 풀이하고 있다. 『奏請行卷』에 실린 다음 시는 당시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전해 준다.

「玉河館에서 즉석에서 붓을 달려 朱野雲이 찾아와 주신 것에 사례 드리며,
아울러 내 마음을 金蘭畦 尙書께 전하다 館中卽席走筆, 謝朱野雲(鶴年)見訪, 兼致
鄙懷金蘭畦尙書(光悌)」

한 美人이 玉河館을 찾아오서
홍금 열고 강개하게 속마음을 논했으니
도독은 韻致 몰라 방 안의 琴 두고 갔고
티끌 없는 높은 선비라 돌을 술 동무로 삼았구려.

28) 『蘓齋二筆』, 「題金簀伯天鹿圖」: “簀伯名家子, 澡潔有至性. 幼年纔十六, 刲股中書病. 神劑不外求, 續爺俄頃命. 我時訪中書, 舉室蒼黃慶. 簀伯創甚卧, 中書言笑靜. 注目佛手甘, 瓷斗拭如鏡. 病榻案內齋, 留我餘人屏. 尙書居外堂, 溫顏聽造請. 近園索季子, 洞屬奔命令. 孝義豈無本, 雍睦閨門正. 於汝見曾閔, 不我虛交聘. 渡鴨日月幾, 遊岱談遷並. 簀伯與近園, 扶欄七閭簋. 遠憶父之執, 萬里寄畫幃. 天鹿鹿卽祿, 祈祝一何盛. (原註: 「獨祿歌」云: ‘求祿求祿, 清白不濁. 清白尙可, 貪汙殺我.’ 晉歌爲鹿字, 古通用也, 出『南齊書·樂志』.) 莫尙書畫家, 區區獎後勁. 孝子之心畫, 觀者庶起敬.” (『叢刊』 291, 66d) 제목 밑에 “金蘭畦尙書子宗邵, 字載園, 官內閣中書. 勇字近園, 舉人. 孫震字簀伯, 一字長卿.”이라는 自註가 있다.

가을 풀에 자연스레 눈물이 흐르는 시절
 저녁 햇살 아름답지만 황혼이 가까운 걸!
 부끄러울 뿐입니다, 먼 곳 나그네 너무 추겨 주시며
 中朝의 宰相으로 먼저 몸을 낮추심이.²⁹⁾
 有美一人訪館門, 披襟慷慨寸心論.
 偷兒不韻琴留室, 高士無塵石伴罇.
 秋草自然堪下淚, 夕陽雖好近黃昏.
 多慙遠客邀虛獎, 先屈中朝宰相尊.

頷聯 뒤에 “모두 野雲의 實錄이다(皆野雲案錄也).”라는 自註를 달았다. 곧 朱鶴年의 방에 침입한 도둑이 쫓은 놓고 재물만 훔쳐간 일화와 朱鶴年이 돌에게 술을 권하며 自酌한 일화를 말한 것이다. 朱鶴年의 방에 있었던 것은 단순한 쫓이 아니라 상당히 가격이 높은 古琴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石癖이 심했음을 알 수 있다. 頷聯 앞句에는 “杜牧의 시에 ‘芳草 또 돌아난 芳草에, 마음 아프고 다시 마음 아프다. 저절로 눈물 흘릴 만하니, 하필 다시 夕陽이 문제일까(杜牧詩: ‘芳草復芳草, 斷腸還斷腸. 自然堪下淚, 何必更殘陽.’)”라는 自註를 달았다.³⁰⁾ 頷聯 뒷句에는 “내가 野雲과는 늦게 사귀게 되어, 떠날 기한이 촉박했다. 그러므로 談草에 李義山の ‘석양은 그지없이 아름다운데, 다만 황혼이 가까웠구나.’라는 詩句를 쓰니, 野雲이 연거푸 圈點을 치고, 눈물을 흘려 종이를 적셨다.(僕晚交野雲, 而行期促近, 故談草寫李義山‘夕陽無限好, 只是近黃昏.’之句, 野雲連手加圈, 泣下沾紙.)”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³¹⁾ 尾聯 뒤에는 다음과 같은 自註를 달아 자신에 대한 金光悌의 好意을 자세히 밝혔다.

蘭畦 尙書는 同樂園 宴筵 班次에서 不佞의 모습을 보고, 돌아가 野雲에게 말하기를 “朝鮮 書狀官은 내 멀리서 그 眉目을 보니 딱 文士인데, 대화를 나누어 보지 못해 아쉽다.”고 하셨다고 한다. 野雲을 보내 만남을 주선하게 하시고, 또 막내 아드님인 近園에게 먼저 名帖을 보내게 하셨다.³²⁾

29) 『奏請行卷』(『叢刊』 291, 19c).

30) 인용된 杜牧의 詩句는 「池州春送前進士蒯希逸」의 首聯과 頷聯이다. 吳在慶 撰, 『杜牧集繫年校注』, 中華書局, 2008, 377면 참조.

31) 紫霞가 쓴 李商隱의 詩句는 「登樂遊園」의 뒤의 두 句이다. 劉學鍇·余恕誠 著, 『李商隱詩歌集解』, 中華書局, 1996, 1942면 참조.

<7> 바닷가로 은퇴한 劉芝圃는
영웅임에도 채소 심으며 편한 말년 보내더니,
情談 나누고 『恩遇記』를 주었는데
戰伐의 勳名이 三楚 일대 진동하였었다네.
海上歸老劉芝圃, 英雄種菜娛桑榆.
班荊贈我恩遇記, 戰伐勳名三楚區.

<7>은 第43句 이하의 네 句로 남쪽 지방에서 큰 戰功을 세우고 은퇴한 芝圃 劉元吉이라는 인물과의 만남을 서술하고 있다. 그는 山海關에 살던 은퇴한 武人으로 추정된다. 『奏請行卷』에는 劉元吉의 뒹뒹이와 살아온 내력을 읊은 七律이 실려 있다.

「山海關을 나서는 날 비바람이 몰아쳤는데, 劉芝圃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出關日風雨, 劉芝圃(元吉)邀話莊上」

십 년 동안 雲夢澤 남쪽에서 실컷 싸우다가
만 리 먼 곳 살아남아 바닷가로 돌아오셨네.
“비바람 심해 누가 찾아오겠는가” 하셨지만
영웅이 채소 심고 살아가시니 歸休함에 마땅하리라
시인 마음 으레 가을 겨울 기운 지녔는데
벼슬살이 嵩洛 쪽에 유독 인연 많으셨네.
나그네 마주하고 은혜 입은 옛 일 이야기하시니
수레 잠깐 멈춰 서도 무방하리라.³³⁾
十年酣戰澤南州, 萬里生還海上頭.
風雨滿城誰過問, 英雄種菜合歸休.
詩腸例有秋冬氣, 宦跡偏多嵩洛區.
對客便談恩遇事, 不妨車馬小遲留.

대화하면서 들은 劉元吉의 개인사를 시 한 수에 녹여 지었기 때문에 여러 곳에

32) “蘭畦尙書於同樂園宴筵班次, 遙見不佞, 歸語野雲曰: ‘朝鮮書狀官, 吾望見其眉目, 必是文士, 恨未接話.’ 乃送野雲紹介相見, 且令季子近園先送名帖.”

33) 『奏請行卷』(『叢刊』 291, 20d).

自註를 달아서 설명을 베풀고 있다. 首聯 첫 句 뒤에 “楚匪를 토벌하는 戰役에 芝圃는 戰功을 많이 세웠다.(楚匪之役, 芝圃多有戰功.)”는 自註를 달았고, 이어서 頷聯 첫 句 뒤에 “芝圃의 詩句를 사용한 것이다.(用芝圃句.)”는 自註를 달았다. 頸聯 뒤에는 “芝圃는 나에게 『嵩洛吟』 한 책을 주었는데, 시집에 「秋景 열 수」와 「雪景 열 수」가 있다.(芝圃贈余『嵩洛吟』一冊, 卷中有「秋景十首」, 「雪景十首」.³⁴⁾)”는 自註를 달았다. 마지막 句 뒤에 “芝圃는 또 『恩遇紀畧』 한 책이 있다.(芝圃又有恩遇紀畧一冊.)”는 自註를 달았다.

<8> 瀋陽將軍 또한 선비를 사랑하여
 衙齋의 雅集에 茶罐가 가득했네.
 「西藏賦」에 글 지어 달라 나에게 청하였으니
 佛國과 仙都를 달려 나갔구나.
 瀋陽將軍亦愛士, 衙齋雅集圍茶罐.
 請我題句西藏賦, 佛國仙都載馳驅.

<8>은 第47句 이하의 네 句로 瀋陽將軍 太菴 和寧(1741~1821)과의 인연을 말하고 있으며, 특히 그가 자신이 지은 『西藏賦』에 題跋을 청한 일을 언급하였다.³⁵⁾ 우리 쪽 기록에는 ‘瀋陽將軍’으로 나오지만, 정식 명칭은 ‘鎮守盛京等處將軍’으로 從一品의 고위직이다. 和寧은 西藏에 근무한 기간이 8년에 이르며, 『西藏志』를 출판하고, 1797년 『西藏賦』를 지은바, 이 작품은 본문과 自註를 합쳐 29000餘字에 이르는 大賦이며, 西藏의 地形, 風土, 歷史, 文化, 宗教 등을 두루 기술하고 있다.³⁶⁾ 마지막 句에서 ‘佛國’과 ‘仙都’를 말한 것은 和寧의 賦에서 西藏에 전래된 불교의 역사를 서술하고 장엄한 佛寺 및 화려한 민속 축제를 묘사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34) 卷中有「秋景十首」, 「雪景十首」: 底本에는 “卷中秋景雪景”으로 되어 있으나 東洋文庫本 『警修堂詩選』에 의거하여 빠진 글자들을 補入하였다.

35) 和寧은 道光 元年 宣宗의 諱를 피하여 이름을 瑛으로 고쳤다. 字는 潤平이고, 號는 太菴이며 姓은 額爾德特氏로 蒙古 鑲黃旗人이다. 和寧 原著, 池萬興·嚴寅春 校注, 「前言」, 『西藏賦校注』, 齊魯書社, 2013, 1면.

36) 和寧 原著, 池萬興·嚴寅春 校注, 「前言」, 『西藏賦校注』, 齊魯書社, 2013, 5면.

<9> 鄂君은 배로 전송하고 泊汭에서 돌아갔으며
 遼東의 두 사람 玉壺를 쥐고 왔는데,
 변방에서 이런 훌륭한 선비를 만나다니
 그 옛날 幼安같은 사람들 아니런가.
 鄂君船送回泊汭, 遼東二生提玉壺.
 邊塞得有此佳士, 莫是當年幼安徒.

<9>는 第51句 이하의 네 句로 遼東의 두 士人과의 인연을 읊은 것으로, ‘遼東二生’ 뒤에 “이극근과 영자형(李克勤, 榮自馨)”이라는 自註를 달아서 두 사람의 이름을 밝혔다. 첫 귀의 ‘泊汭’은 鴨綠江 유역의 지명으로 이들이 거의 국경까지 전송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대목은 『奏請行卷』에 실린 다음 시와 함께 읽어야 의미가 더 분명해진다.

「요동의 두 선비가 나를 책문까지 전송하니 절귀 한 수를 드리다 遼東二生
 送我柵門, 贈以一絕」

내일 아침 압록강 너머 고국 풍광 볼 터인데
 무슨 일로 마음은 또 아련해지는 걸까.
 가없는 落木으로 눈바람 거세저도
 幼安은 鄂君船으로 전송해 주었네.³⁷⁾
 明朝鴨綠見鄉烟, 何事歸心又惘然.
 落木無邊風雪漲, 幼安相送鄂君船.

이 시에서도 제목의 ‘遼東二生’ 뒤에 “李克勤, 榮自馨”이라는 自註를 달았다. 첫 두 귀는 내일 압록강을 건너면 바로 故國이지만, 어진 선비들과 작별해야 하기에 서운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고, 뒤의 두 귀는 악천후 속에서도 자신을 전송해 준 두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 것이다. 마지막 귀 뒤에 “책문 숙소의 주인의 姓이 鄂氏라 이렇게 말하였다.(柵內主人姓鄂故云)”는 自註를 달아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鄂君船’은 벗이 모든 배를 뜻하는 成語인데, 마침 柵門 숙소의 주인이 鄂氏여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배를 타고 전송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³⁸⁾

37) 『奏請行卷』(『叢刊』 291, 21c).

이 시 마지막 귀와 <9>의 마지막 귀에 나오는 ‘幼安’은 後漢 말엽에 활동했던 管寧의 字로 中原이 어지러워지자 遼東 지방으로 피신하여 經學과 禮學에만 힘쓰다가 中原이 안정되자 돌아온 인물로 두 사람의 인품과 학문을 칭찬한 것이다. 지금 談草나 그밖의 기록이 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사연은 알 수 없지만, 두 사람 역시 明末淸初의 혼란기에 아예 만주족의 본거지인 요동으로 이주한 지식인들의 후손이 아닌가 짐작해 볼 수도 있으며, 국경까지 전송한 것을 보면 짧은 만남이었지만 두 사람과의 情誼가 꽤 두터웠음을 알 수 있다.

<10> 蘇齋의 뛰어난 父子를 뜻하고 난 뒤로
누라서 해매고 어리석은 걸 일깨우고 고쳐 주겠는가.
蘇齋를 대신한 사람으로 蘭雪이 있고
金粟과 秋吟이 나란히 操觚하였는데,
내 詩品을 蘇黃이라 잘못 허여하시고
墨竹은 지붕 위의 까마귀까지 사랑하듯 아울러 사랑해 주셨는데,
名山에 간수해 달라는 부탁을 저버릴까 두려운데
金粟은 스스로 金丹을 부수고 세상을 떠났네.
秋吟은 시를 논함에 가장 적합하였는데
시집 서문 써 달라 동해 모퉁이로 부탁하였네.
蘭雪은 한번 떠나 만 리나 떨어졌으니
萼綠梅가 琴音인 양 위로해 주었네.
自哭蘇齋名父子，誰爲惺迷誰砭愚。
蘇齋替人有蘭雪，金粟秋吟並操觚。
詩品謬以蘇黃詡，墨竹兼之愛屋烏。
名山付託恐相負，金粟自破金丹殂。
秋吟最與論詩契，弁卷屬之東海隅。
蘭雪一麾隔萬里，萼綠梅慰琴音摸。

<10>은 第55句부터 第66句까지의 열두 句로 翁方綱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詩畫로 깊게 사귀었던 吳嵩梁, 蔣詩, 錢林과의 翰墨緣을 추억하고 있다. 이 세 문인은 비록

38) 『漢語大詞典』: “楚王母弟鄂君子晰泛舟湖上, 越女爲之操舟, 並作歌贊之. 後因以‘鄂君船’爲與友人泛舟的典故. 唐司空曙「送嚴使君游山」詩: ‘青春明月夜, 知上鄂君船.’”

자하와 한 번도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서신으로 시문과 서화를 주고받은 사이지만 교분이 매우 두터웠다.

紫霞는 翁方綱 문하에서 吳嵩梁의 시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여 吳嵩梁에게 자신의 시집의 서문을 청한 바 있다.³⁹⁾ 蔣詩와는 詩論이契合하여 여러 차례 詩畫를 주고받았다. 蔣詩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시집의 서문을 紫霞에게 받아 달라는 유언을 남기기도 하였다.⁴⁰⁾

錢林은 紫霞에게 먼저 교유를 청했고, 죽기 직전에 자신의 문집을 紫霞에게 보내며 해동의 명산에 잘 갈무리해 달라고 부탁한 사연이 있다.⁴¹⁾ 제66句에 나오는 ‘萼綠梅’는 꼭지와 가지가 파란 매화이다.⁴²⁾ 뒤에 “蘭雪이 黔南으로 떠날 때, 나에게 哲配의 「綠梅圖」를 부쳤다.(蘭雪黔南行時, 寄余其哲配「綠梅圖」.)”는 自註로 그 경위를 밝히고 있다.⁴³⁾

이들과의 교유는 別稿를 통해서 다루어야 할 만큼 翁方綱-翁수곤 부자 이후에는 가장 비중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1> 丁中翰(卯橋)은 여러 차례 내 詩稿를 구하였고
鄧孝廉(守之)는 일찍이 그림을 청하였네.
熊(雲客)·劉(眉士)·周(菊人)·張(茶農)은 여전히 無恙한지
하늘가의 별처럼 흩어지고 기러기도 끊겼는데.
丁中翰屢求詩稿, 鄧孝廉曾乞畫厨.
熊劉周張尙無恙, 星散天涯斷雁奴.

39) 吳嵩梁과의 교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박철상, 「紫霞 申緯의 燕行과 翁方綱의 영향」, 『韓國漢文學研究』 75, 韓國漢文學會, 2019 참조.

40) 이현일, 「紫霞 申緯의 「東人論詩絕句」 다시 읽기」, 『韓國漢文學研究』 83, 韓國漢文學會, 2021 참조.

41) 『江都錄(一)』, 「輓錢金粟學士」三首之三: “詩卷東來進淚吟, 他生酬否此生心. 誰知海外神交在, 不朽名山付託深.(原註: ‘金粟臨終, 于託秋吟以詩卷寄紫霞. 故秋吟輓詩云: “未了事完才易簣, 屬許舊句寄鷄林.”’)」(『叢刊』 291, 332c)

42) 范成大『范村梅譜』: “綠萼梅: 凡梅花跗蒂皆絳紫色, 惟此純綠, 枝梗亦青, 特爲清高, 好事者比之九嶷仙人萼綠華. 京師艮嶽有萼綠華堂, 其下專植此本.”(『漢語大詞典』에서 재인용.)

43) 『覆瓿集(三)』, 「閔吳蘭雪舊所贈琴香閣畫梅畫山水, 岳綠春畫蘭諸幅, 感題四絕句」之四: “紅蘭綠萼異香噴, 滿篋烟雲墨未昏. 擬古欲題三婦艷, 石溪萬里慰詩魂.”(『叢刊』 291, 586a)

<11>은 第67句부터 第70句까지의 네 句로 丁泰, 鄧守之, 雄昂碧, 劉枚, 周達, 張深 등과의 인연을 간단히 언급하면서 그들과의 소식도 지금은 끊겼음을 아쉬워하고 있다. 이들과 주고받은 시문도 양이 많아서 別稿로 다룰 필요가 있다.

丁泰는 字가 卯橋이며, 熊昂碧의 서재에서 자하의 詩畫를 보고, 즉흥시를 지어 보내 교유를 청하자, 자하는 기꺼이 次韻詩를 지어 보냈다.⁴⁴⁾ 鄧尙璽도 시를 지어 보내 申命準의 그림을 구한 적이 있는데, 紫霞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자신이 직접 墨竹을 그리고 次韻詩를 지어 보낸 일이 있다. 이러한 일들은 『花徑贖墨(九)』에서 확인할 수 있다.⁴⁵⁾

熊昂碧은 字가 露莖, 號가 雲客이며, 雲間(松江縣으로 지금은 上海市에 편입됨) 사람이다. 자하에게 먼저 교유를 청하고 아울러 그림을 그려 보내달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와 시를 써서 자신의 시집인 『雲客詩鈔』와 함께 조선의 春節使 편에 부쳤는데, 자하는 이 시문들을 丁亥年(1827) 늦가을이 되어서야 받아볼 수 있었다. 자하는 바로 次韻詩를 짓고, 「紫霞山莊圖」를 그리고 自題詩를 적어 함께 보냈다.⁴⁶⁾ 자하의 시에 나오는 “君은 蔣秋吟의 집에 머물고 있다.”와 “熊雲客은 蔣秋吟 덕에 숙소를 정하고 西席을 차지하고 있다”는 自註를 보았을 때, 熊昂碧은 蔣詩의 僚屬이었거나, 그 집에서 塾師 노릇을 했었던 것으로 보인다.⁴⁷⁾

44) 『九十九菴吟藁(二)』, 「丁卯橋中翰(泰), 於雲客齋中, 見余詩畫, 口占一絕句, 遙訂神交, 久而未復, 追次原韻」(原註: 「卯橋, 浙江人」: “浙江萬里墨緣奇, 與子前宵夢見之. 明月滿江孤鶴影, 碧蘆花畔掠舟時.(原註: 「敝齋曰碧蘆舫.」)”(『叢刊』 291, 349d) 庚寅年(1830)에 지은 작품이다.

45) 『花徑贖墨(九)』, 「江南皖人鄧守之(尙璽), 以詩求命準畫, 戲用其韻, 自題墨竹寄鄧, 遙結一重墨緣」(原註: “字書, 皖與皖通.”: “秀絕江南烟雨景, 時從澗土畫中譜. 却憑淡墨青鸞尾, 掃取皖公洞夕嵐.”(『叢刊』 291, 235d) 甲申年(1824)에 지은 작품이다.

46) 『倉鼠存藁(二)』, 「熊露莖(昂碧), 雲間名士也, 今春節使回, 貽書證交, 且寄四絕句, 秋杪始得發函, 次韻謝答」之一: “傍人書劔久低回,(原註: 「君下榻蔣秋吟寓館.」) 俊逸誰當一代才. 誰到雞林喧萬口, 氣來椽筆又神來.(原註: 「君刻集, 有『雲客詩鈔』寄余一本.」) 之四: “海上詩菴喚碧蘆, 一家終日住蓬壺. 欲將眼界定藍本, 萬丈蛟綃天下無.(原註: 「君求拙畫故戲云.」)”(『叢刊』 291, 310d) 『詩夢室小草(一)』, 「自題紫霞山莊圖, 寄熊雲客」(『叢刊』 291, 319a) 참조. 『警修堂全藁』에는 熊昂碧의 字가 露莖로 나오지만 『雲客詩鈔』에는 露莖으로 되어 있다. 또 『雲客詩鈔』에는 金山 출신으로 나오는데 이곳은 鎮江에 있는 金山이 아니라 오늘날 上海市 松江縣 부근의 지명으로 판단된다(『漢語大詞典』 참조).

47) 『江都錄(一)』, 「次韻答松江熊雲客(昂碧)見懷二首」之二: “四海秋吟老, 才名又得君.(原註: 「雲客館蔣秋吟宅, 主西席.」) 燈明燕市酒, 人憶薊邱雲. 臭味苔岑合, 神精畫稿分.(原註: 「原詩云: 蕭穆數竿竹, 高致憶夫君.」) 嗟吾遊宦久, 魚雁斷知聞.(原註: 「余時在江都分司.」)”(『叢刊』 291, 332d). 林映吉,

劉枚는 錢塘 사람으로, 자하의 『詩夢室小草(一)』에 劉枚에게 보낸 시가 두 수 실려 있다. 한 수는 劉枚 書法의 淵源을 읊은 書盟歌이고, 다른 한 수는 자신의 墨竹에 써서 보낸 題畫詩인데 劉枚를 吳嵩梁, 錢林, 張深과 함께 ‘燕中四家’의 한 사람으로 일컫고 있다.⁴⁸⁾

周達은 字가 吉人, 號가 菊人이며, 周敦頤의 후손이다.⁴⁹⁾ 자하가 燕行을 떠나는 尹虛舟를 통해 周達에게 ‘碧蘆舫’ 편액을 써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周達이 편액 글씨를 잘 써 주었으나, “虛舟尊兄이 못가에 집을 짓고 ……”라 欸題에 썼다고 한다. 부탁한 사람이 虛舟라는 호를 쓰니 周達이 碧蘆舫이라는 堂號도 그가 쓰는 줄 착각했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곡절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尹虛舟와 자하가 周達이 써 준 堂號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다고 한다. 자하는 연행을 떠나는 南尙敎에게 餞別詩를 지어 주면서 周達에게 改款해 줄 것을 부탁하고, 아울러 그 시를 읽는 중국 명사들이 자신을 위해 碧蘆舫 편액을 써 줄 것을 요망한다고 썼다. 또 周達이 李肇源을 통해 자하에게 부탁한 「金剛山圖」를 그려 역시 南尙敎 편에 보내기도 하였다.⁵⁰⁾

「紫霞 申緯와 청 문단의 교유 양상-1812년 연행 이후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116, 성균관대학교 大東文化研究院, 2021, 137면에 따르면 熊昂碧은 1826년 冬至正使로 연행한 洪羲俊·洪錫謨 부자와 교유하였으며, 洪錫謨의 『游燕藁』에 관련 기록이 전한다.

- 48) 『詩夢室小草(一)』, 「鍾眉士(枚)書盟歌」(『叢刊』 291, 319b) 및 「自題墨竹, 寄燕中四家」 중 「鍾眉士」(『叢刊』 291, 319d) 참조. 丁亥年(1827) 겨울에 지은 작품들이다.
- 49) 藤塚鄰, 『清朝文化東傳の研究』, 國書刊行會, 1975, 266~280면에 따르면, 周達은 西堂 및 秋史와 山泉과도 깊이 교유하였다. 周達과 조선 문인들의 교유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林映吉, 「玉壺 李肇源의 『燕薊風煙』과 한중 문인 교유」, 『漢文學論集』 54, 242~246면 참조.
- 50) 『紅蠶集(三)』, 「南雨村進士, 從鴛溪院判入燕, 話別之次, 雜題絕句, 多至十三首, 太半是懷人感舊之語, 雨村此次, 與諸名士遊, 到酣暢, 共出而讀之, 方領我此時心事」之九: “碧蘆舫子吟詩苦, 詩在蘆花瑟瑟秋. 恨殺菊人題跋後, 舫名容易屬虛舟.”(『叢刊』 291, 268a) 자하는 마지막 句 뒤에 다음과 같은 自註를 달았다. “敝齋名曰碧蘆舫, 前因尹虛舟學士, 屬書額於周菊人, 菊人欸題曰‘虛舟尊兄, 築室池上’云云. 自後虛舟與僕聚訟舫名, 久猶未決, 諄囑(底本에는 이 뒤에 而가 있으나, 『申緯全集』에 의거하여 衍字로 판단하여 삭제함)雨村再將碧蘆舫三字, 轉懇菊人改書改款, 了此一重公案, 竝願海內名士凡與雨村指青者, 遍賜額書, 交相照證.”之十: “烟雲底索墨模糊, 周菊人憑李玉壺. 萬二千峯纔數曲, 山靈噴吐漏仙都.” 마지막 句 뒤에 “今年菊人從玉壺向書, 屬余畫金剛山圖, 強拙應酬.”라는 自註를 달았다. 乙酉年(1825) 겨울에 지은 작품이다. 자하는 申命準이 그린 「丹陽圖帖」을 보고 謙齋 鄭澈의 眞景山水畫에 보이는 匠氣가 없다고 좋아하였는데, 본인은 어떤 양식으로 그려서 보냈는지 궁금하다. 『覆瓿集(六)』, 「雪城倅觀余入京, 以所繪丹陽圖帖呈覽, 幅幅殊無謙翁眞境描逼之匠氣也, 戲題帖後」: “天開圖畫與丹陽, 泉石江山聚一鄉. 水鶴夢驚蕉學士, 晴虹船過米元章. 清貧太守初歸錦, 縹緲烟雲動解囊. 無佛稱尊雖所短, 離真得似是微長.”(『叢刊』 291, 604cd)

張深은 號가 茶農으로, 山泉 金命喜에게 얻은 申命準의 畫扇을 보고 감탄하여 “倪雲林(인용자-倪瓚)은 새로이 宗派를 열었으며, 米敷文(인용자-米友仁)은 저절로 家風을 갖추었네.”라는 楹聯을 申命準에게 지어 보내며 그림을 그려 줄 것을 청한 일이 있는데, 자하는 申命準이 禮를 공부해야 해서 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하며, 이번에도 자신이 그림을 대신 그려 보냈다.⁵¹⁾ 張深은 몇 년 뒤 「五州烟雨圖」를 그려서 보내 주기도 하였다.⁵²⁾

<12> 손가락 튕기는 새 舊雨가 떨어지니
아스라한 곳 홀로 선 늙은이만 남아 있어,
그리울 일이 어찌 黃葉에만 그칠 건가
느낌은 河山의 酒店에서 이웃 피리 소리에 있구나.
때때로 雲伯이 시를 보내 오나니
아득히 먼 열린 화장 西子湖에서.
舊雨零落一彈指, 獨立蒼茫餘老夫.
可懷何止於黃葉, 感在鄰笛河山壚.
縱有雲伯寄詩至, 渺渺澹粧西子湖.

<12>는 第71句부터 第76句까지의 여섯 句로 淸나라의 벗들을 먼저 떠나보낸 아쉬움을 토로하고, 그나마 陳文述과의 교유가 위안을 주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舊雨는

51) 『倉鼠存藁(二)』, 「寄謝張茶農(深)(并序)」: “曾見茶農六法明, 夙參禪理透詩情. 畫家毛正光之反, 士氣求諸熟後生. 屢售吾鄉自不乏, 購求名蹟苦難營. 小兒亂道迷津筏, 尙願婆心寶藏傾.”(『叢刊』 291, 311b) 제3귀 뒤에 “光正(인용자-底本에는 先正으로 되어 있으나, 東洋文庫本 『警修堂詩選』에 의거하여 바로잡음)毛之反, 王石谷論畫語.”라는 自註를 달았으며, 마지막 句 뒤에는 “海外荒僻, 罕見古人名蹟藁本, 無以成就畫業, 可恨也.”라는 自註를 달았다. 序: “張茶農寄贈兒子命準一聯曰: ‘倪雲林別開宗派, 米敷文自具家風.’ 又題曰: ‘少霞尊兄, 聞爲紫霞先生令嗣, 詩畫淵源, 著聲東國. 頃山泉(金命喜別字, 秋史之弟也.)以畫扇移贈, 筆墨簡老, 直追古人, 爰撰句爲報, 惜不得一瞻賢橋梓雅儀, 爲悵悵耳.’ 兒子時方讀禮, 爲之代肅(인용자-隸의 誤寫로 생각됨)奉報云.” 丁亥年(1827)에 지은 작품이다.

52) 『覆瓿集(十)』, 「題張茶農(深)所寄五州烟雨圖」: “畫家山水米家點, 超脫毫端板俗容. 一幅五州烟雨景, 前王查筴後茶農.”(『叢刊』 291, 632d) 자하는 제목 뒤에 다음과 같은 自註를 남겼다. “茶農題畫後云: ‘五州爲南徐鎮山, 故米海岳父子多愛寫之, 本朝王石谷(인용자-王翬), 查梅壑(인용자-查士標), 筴江上(인용자-筴重光)三賢, 曾合作一本, 題曰五州烟雨, 盖倣米也. 紫霞先生有道, 精研六法, 爲海東宗匠. 竊取其意, 藉就正焉. 蒼雪子張深.’” 癸卯年(1843) 작품이다.

舊友를 의미하며, ‘舊雨零落’은 오랜 벗들이 세상을 떠난 것을 의미한다.⁵³⁾ 杭州의 陳文述은 자가 雲伯으로 당대의 風流文人으로, 특히 여성 시인들을 이끌어 주는 데 袁枚에 버금가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⁵⁴⁾ 또 紫霞와 海居 洪顯周와 서신으로 교유하며 두 사람의 그림을 자신의 『畫林新詠』에서 읊기도 하였다.⁵⁵⁾

<13> 내 애달픈 회포 듣고 藕船도 눈물 흘려
 ■人은 눈물 많고 기쁜 일 적은데,
 들을 수는 있어도 셀 수 없는 黃葉들
 반 너머 碧蘆舫의 갈잎 소리 어울렸네.⁵⁶⁾
 聞我苦懷藕船泣, ■人多淚少歡歛.⁵⁷⁾
 黃葉可聽不可數, 一半響交蘆舫蘆.

<13>은 마지막 네 구로 藕船과 함께 슬퍼하며, 黃葉들과 갈대 소리가 어우러지는 장면으로 끝맺고 있다. 上平聲 虞韻으로 一韻到底한 작품으로 韻脚은 無, 糊, 儒, 蘇, 模, 俱, 癯, 乎, 呼, 毬, 衢, 駒, 娛, 符, 鬚, 虞, 謨, 都, 須, 濡, 榆, 區, 鑪, 驅, 壺, 徒, 愚, 觚, 烏, 殂, 隅, 摸, 厨, 奴, 夫, 壚, 湖, 歛, 蘆이다. 한 글자도 隣韻과 通韻하지 않았다. ‘由蘇入杜’한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한 작품으로 李尙迪처럼 연작 懷人詩를 짓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紫霞 스스로도 『奏請行卷』을 비롯한 예전에 지은 관련 시편들을 펴 놓고 고심해서 지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하의 이 작품이 펴 인상적이었던지 훗날 李尙迪은 「子梅가 靑州에서 시를 부쳐 春明六客圖에 題詩를 써 주기를 청하다 子梅自靑州寄詩, 索題春明六客圖」라는 시를 지어 王鴻에게 보낸다.⁵⁸⁾ 지은 시기는 乙卯年(1855)으로 자하의 작품보다 23년 뒤이

53) 『漢語大詞典』: “杜甫「秋述」: ‘常時車馬之客, 舊, 雨來; 今, 雨不來.’ 謂過去賓客遇雨也來, 而今遇雨卻不來了. 後以‘舊雨’作爲老友의 代稱.”

54) 이현일, 「조선후기 경화세족의 이상적 여성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참조.

55) 이현일, 위의 논문.

56) 『養硯山房藁(四)』(『叢刊』 291, 423b~424b).

57) 東洋文庫所藏 『警修堂詩選』에도 한 글자 누락되었는데, 筆寫者는 “人多淚少■歡歛”로 표기하고 있다.

58) 李尙迪, 『恩誦堂集·續集·詩』 卷2(『叢刊』 312, 258c~259a). 乙卯年(1855)

다. 모두 五言 62句의 長篇으로 下平聲 麻韻으로 一韻到底하고 있다. 도입부에서 자신이 교유한 청나라 문인들을 老宿과 後起數君子로 나누고, 주로 뒤의 인물들에 초점을 맞추어 회고하고 있는바, 역시 자하의 선례가 모범이 되었을 것이다.⁵⁹⁾

Ⅲ. 翁方綱·翁樹崑父子와의 翰墨緣

1. 寶蘇人の 念願: 『施注蘇詩』와 「天際烏雲帖」 拜觀

주지하듯이 紫霞가 翁方綱의 교유 중에서 후대에 가장 자주 일컬어진 것이 石墨書樓에서 『施注蘇詩』와 「天際烏雲帖」을 拜觀한 일이다.

『施注蘇詩』는 南宋의 施元之·施宿父子와 顧禧가 合作으로 註를 단 최초의 蘇軾 編年詩集으로 알려져 있다.⁶⁰⁾ 우리나라에서 많이 읽힌 『集註分類東坡先生詩』가 주제별로 분류된, 보다 넓은 독자층을 위한 시집인 것과는 대조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施宿이 公金으로 이 책을 간행한 것이 문제가 되어 탄핵당했기 때문에 南宋 시대부터 전하는 刊本이 많지 않았으며, 明清代로 내려오면서는 稀貴本이 되었다고 한다.⁶¹⁾ 중국의 지식인들 중에서도 이 책을 직접 본 사람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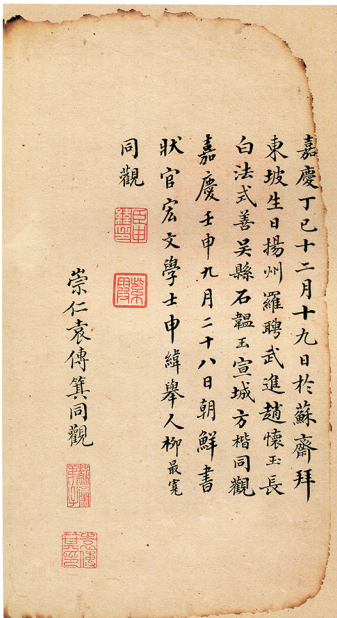
翁方綱의 호의로 紫霞는 이 책을 직접 보고 拜觀記를 쓸 수 있었다. [圖版 1]은 『施注蘇詩』 卷4의 前附葉에 쓴 紫霞의 拜觀記이다. 네 번째 줄에 紫霞가 壬申年 9월 28일 柳最寬과 함께 이 서첩을 보았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翁方綱이 세상을 떠난 뒤 이 책은 몇 사람의 손을 더 거치게 되며, 후지츠카 치카시는 『清朝文化東傳の研究』에서 이 책이 화재로 소실되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和陶詩’ 부분을 제외하면 翁方綱이 소장했던 당시의 책들이 거의 그대로 전하고

59) 「春明六客圖」는 王鴻이 燕京 慈仁寺에 李尙迪을 비롯한 여러 벗들을 초대해서 가진 詩會를 기념해서 그린 그림으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李春姬, 『19世紀 韓·中 文學交流』, 새문사, 2009, 193~197면 참조.

60) 衣若芬, 「敬觀眞賞: 翁方綱舊藏本『施顧註東坡詩』研究」, 『書藝東坡』, 上海古籍出版社, 2019, 204~205면.

61) 衣若芬, 위의 책, 206면.



〈圖版 1〉紫霞의 拜觀記

있다. 이 책은 청나라 말엽에 袁思亮(1879~1939)의 소유가 되었는데, 北京에 있던 그의 저택에 불이 나서 藏書樓의 다른 책들은 다 타버렸으나, 식구들이 목숨을 걸고 이 책만은 구해냈다고 한다. 다만 [圖版 1]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불에 그슬린 것은 면치 못하였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歷代 名人들의 題記와 印章 등은 경미한 손상만 입었으며, 이후 ‘焦尾本’이라는 별칭이 붙었다고 한다.⁶²⁾ 지금은 臺灣의 國家圖書館에 소장되어 있으며, 10여 년 전에 臺灣의 한 출판사에서 21卷 21冊의 정밀한 복제본이 출판되었다.⁶³⁾

역대로 이 책에 題記를 남긴 사람들의 명단이 최근 정리되었는데, 모두 78명이라고 한다.⁶⁴⁾ 조선시대 문인으로 이 책에 拜觀記를 남긴 사람은 紫霞에 이어 바로 燕行을 떠났던 斗室 沈象奎(1766~1838)가 더 있다. 斗室은 卷11 前附葉에 朴

善性和 함께 拜觀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圖版 2] 참조)

「天際烏雲帖」 역시 직접 본 사람이 드문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 書帖에는 東坡가 직접 쓴 여섯 수의 시가 적혀 있는데, 翁方綱은 물론 虞集, 吳寬, 董其昌 등 元明대의 거목들의 題跋이 아울러 붙어 있다. 다만 「天際烏雲帖」의 경우 模刻本이 몇 종 있어서 조선에까지 流傳되었다.⁶⁵⁾

翁方綱 舊藏의 이 「天際烏雲帖」은 20세기 초에 商務印書館에서 복제본을 만들 때까지만 해도 소재가 분명했으나, 지금은 그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한다.⁶⁶⁾ 따라서 紫霞의 拜觀記도 지금은 확인할 길이 없다.

62) 『註東坡先生詩 精選集』, 大塊文化, 2018, 120면, 「傳奇的劫後‘焦尾本’」 참조. 이 논문의 [圖版 1]과 [圖版 2]는 각각 이 책 104면과 106면에 실린 것을 스캔한 것이다.

63) 『註東坡先生詩(焦尾本)』, 大塊文化, 2012.

64) 衣若芬, 위의 책, 242~245면, ‘翁方綱舊藏本『施顧注東坡先生詩』諸家題記存知列表’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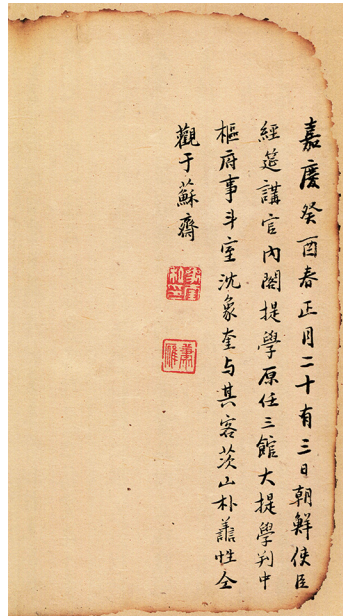
65) 박현규, 위의 논문 참조.

66) 衣若芬, 「天際烏雲含雨重: 「天際烏雲帖」, 『書藝東坡』, 上海古籍出版社, 2019, 3면.

紫霞의 부친인 申大升 역시 1780년 冬至副使로 燕行을 다녀온 적이 있으며, 이때 약간의 詩文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⁶⁷⁾ 다만, 이때 紫霞가 燕京에서의 활동에 많이 참조한 것은 秋史의 贈別詩 10首일 것이다.⁶⁸⁾ 秋史의 贈別詩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상세히 분석한 성과가 있으므로,⁶⁹⁾ 여기서는 「天際烏雲帖」과 관련된 한 수만 살펴보고 한다.

「燕京으로 떠나는 紫霞를 전송하며 열 수 중 세 번째 수 送紫霞入燕」十首之三

다락 앞쪽 산 위로는 열린 햇빛 남았건만
快雪帖과 粉箋本은 주장 서로 다르다네.
만 리 밖 나그네를 靑眼으로 맞아주시리니
일찍이 부채에서 봄바람 찾았었지.
樓前山日澹餘紅, 快雪粉箋說異同.
萬里許君靑眼在, 曾於扇底覓春風.



〈圖版 2〉斗室의 拜觀記

秋史는 두 번째 句 뒤에 自註를 붙여 이帖의 眞僞와 관련된 언급을 잠깐 하고 있는데, 조선에까지 들어온 明代의 『快雪堂帖』에 실린 「天際烏雲帖」과 翁方綱 所藏의 「天際烏雲帖」이 서로 다른 것을 지적한 것이다.⁷⁰⁾ 마지막 구 뒤에는 紫霞에게 그림을 지도 받은 다음과 같은 사연을 남겼다.

67) 임기중, 『증보판 연행록 연구』, 일지사, 2006, 24면에 따르면 ‘三節年貢使’의 副使로 1780년 11월 燕行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다. 『奏請行卷』, 「九連城, 敬次先君子詩韻」: “九城吟望日西斜, 庚子星軺歲忽除. 景物依依今視昔, 老槐疎柳似人家.” 原註: “第四句, 全錄先君子詩.”(『叢刊』 291, 12a) 이 시를 통해 申大升이 최소한 燕行詩集은 남겼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68) 金正喜, 『阮堂全集』 10, 「送紫霞入燕」(『叢刊』 301, 182b).

69) 박철상, 위의 논문에 자세하다.

70) 原註: “嵩陽帖眞迹, 是宋粉箋. 快雪帖所刻, 非蘇齋本, 快雪帖原本非粉箋. 與題跋沕然一紙, 皆有考證詳切.”

내가 일찍이 「嵩陽帖」의 詩意를 부채위에 摹畫하려 하였는데 鋪置가 자못 어려워 紫霞에게 點定받았다.⁷¹⁾

마침 紫霞가 「天際烏雲帖」에 실린 蔡襄의 시를 臨摹하고 詩意를 그림으로 그린 書畫合璧帖이 전한다.⁷²⁾ 10여년 전에 전시회가 열릴 때 實査한 적은 있으나, 필자가 眞僞를 판정할 능력은 없지만, 참고로 圖版으로만 들어둔다.



〈圖版 3〉申緯, 「天際烏雲書畫合璧帖」(50.5cm×21.5cm, 『文心和 文情』, 孔畫廊, 2010, 35면.)

紫霞는 진귀한 두 유물에 題記를 적고, 그 기쁨을 다음과 같은 古詩로 남겼다.

「覃溪老人이 蘇東坡 시집의 송나라 판본과 ‘天際烏雲帖’ 眞跡을 꺼내 보여 주시니, 내가 두 유물에 모두 跋을 지은 뒤 기뻐하며 짓다 覃溪老人, 出示蘇集宋槧本, 天際烏雲帖眞跡, 余既兩跋之, 喜而有述」

나는 타고나길 單鉤 偃筆로 쓰니

71) “余昔摹畫嵩陽帖詩意於扇頭, 鋪置頗難, 爲紫霞所點定.”

72) 翁方綱 역시 화가들에게 부탁하여 蔡襄의 시를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復初齋詩集』 卷69, 「高麗李六橋以寶翁名齋, 復以天際烏雲四字, 自題齋扁, 書來求摹此帖, 寄答三首」之二: “金君寶覃扁, 君復寶翁名. 慙愧英光笈, 低回海岳情. 烏雲紅日影, 含雨照山明. 石硯屏相對, 憑誰畫得成.(原註: ‘每屬畫家, 寫此句意.’)”(『續修四庫全書』 1455, 上海古籍出版社, 321bc).

사람들 말하였지, 하늘에서 蘇仙派를 보내주셨다고.
 端明의 眞墨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岷峨의 푸르름을 실컷 보는 걸 꿈이라도 꾸었겠나.
 머리 숙여 蘇米齋께 길을 물으니
 꽃을 권 大迦葉처럼 一喝하셨네.
 嵩陽居士의 靑眼으로 만 리 밖 사람 대하니
 하늘가 먹구름 새 붉은 해가 비추누나.
 法乳는 子敬(王獻之)에게서 僧虔(王僧虔)에 다다르니
 偃筆과 提筆을 뒤라서 나누랴!
 동해 동쪽 외진 곳에서 살다가
 眼福이 응당 快雪에 의지해 통쾌해졌네.
 宋나라 白粉箋이 홀연히 앞에 있으니
 꿈에서 깨어난 듯 풀어진 것이 맺힌 듯
 공은 말씀하시길 하나를 고집하여 논하지 말라
 定香橋店과 守居廨 중에서.
 ‘金籠’과 ‘雪衣’는 확실히 가리키는 바 있으니
 杭州 사람들은 비둘기를 날려 보내니 본디 戲言이었다.
 王十朋의 注가 濫觴이 되어 내려와서
 한 글자를 실수하여 虛舟인 듯 장애가 되었구나.
 공의 시집이 또 공의 서첩과 함께하니
 石墨書樓는 밤에도 무지개가 걸렸구나.
 『施註蘇詩』 殘本은 歐陽詢體 썼는데
 백세 뒤에 覃溪가 빛을 갹아
 禽經에 傳會함을 통쾌히 찢었으니,
 『蘇詩補註』를 사람들 다투어 사들이네.
 이날 서첩에 跋을 하고 또 시집에 跋을 하니
 널리 삼과 모시 모을 때 띠풀이 섞인 것이 부끄럽네.
 돌아와서 스스로 翰墨緣을 경축하니
 내 小照를 또 蘇齋 문하생이 그려 주었네.
 바로 周 長官에게 가지고 가서
 淨慈禪寺에서 梵唄를 듣고 싶네.⁷³⁾

73) 『奏請行卷』(『叢刊』 291, 18c).

我生單鉤偃筆書，人謂天遣蘇仙派。
 端明眞墨見未曾，夢想岷峨翠決眚。
 稽首問津蘇米齋，拈花大迦葉一喝。
 嵩陽青眼萬里人，天際烏雲紅日晒。
 法乳子敬到僧虔，偃筆提筆誰分界。
 偏隅跼促東海東，眼福祇憑快雪快。
 宋白粉箋忽當前，似夢得醒如結解。
 公言是莫執一論，定香橋店守居廨。
 金籠雪衣確有指，杭人放鴿自狡獪。
 王十朋注濫觴來，誤一尖字虛舟隘。
 公集又與公帖偕，石墨樓夜晴虹掛。
 施氏殘本歐體書，曠百世了覃溪債。
 傳會禽經快洗之，蘇詩補註人爭賣。
 是日跋帖又跋集，廣收麻象慙蒼蔽。
 歸來自慶翰墨緣，賤照又出蘇門畫。
 徑欲携去周長官，淨慈禪寺聞梵唄。

중간에 한번 사용된 喝 이외에는 去聲 卦韻을 사용하였으며 韻脚은 派, 眚, 晒, 界, 快, 解, 廨, 獪, 隘, 掛, 債, 賣, 蔽, 畫, 唄이다.

첫 네 句는 紫霞가 어렸을 때부터 偃筆로 글씨를 쓰니 주변 사람들이 東坡의 一派가 태어났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곧 東坡의 眞迹을 보지 못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東坡가 偃筆을 즐겨 사용했다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董其昌의 기록에 의하면, 중국인들도 역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많았던 듯하다.

坡公의 글씨는 偃筆이 많으니, 이 또한 하나의 병이다. 이 「赤壁賦」는 거의 이른바 종이 뒤쪽이 뚫릴 정도로 모두 正鋒만 썼으니, 이는 곧 坡公의 「蘭亭序」이다.⁷⁴⁾

“偃筆提筆誰分界” 뒤에 “내가 東坡의 眞迹을 직접 보니, 붓질마다 모두 提筆이었다.(余見眞帖跡, 筆筆皆提筆.)”는 自註를 달아서 俗說의 그릇된 점을 지적하였다.

74) 董其昌 著, 屠友祥 校注, 『畫禪室隨筆』, 上海遠東出版社, 1999, 84면, 「跋赤壁賦後」: “坡公書多偃筆, 亦是一病. 此「赤壁賦」, 庶幾所謂欲透紙背者, 乃全用正鋒, 是坡公之「蘭亭」也. 眞跡在王履善家. 每波畫盡處, 隱隱有聚墨痕, 如黍米珠, 恨非石刻所能傳耳. 嗟乎! 世人且不知有筆法, 況墨法乎!”

위의 시의 전반부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 「天際烏雲帖」의 맨 앞부분만 읽어 보기로 한다.

“하늘가 검은 구름 비를 잔뜩 머금었는데, 다락 앞 붉은 해는 산을 붉게 물들이네. 嵩陽居士는 지금 어디 있는가, 靑眼으로 사람 보는 만 리의 情.” 이는 蔡君謨(蔡襄)이 꿈속에서 지은 시이다. 내가 錢塘에 있을 때 하루는 陳述古를 뵈었더니, 나를 堂 앞의 小閣으로 맞이하여 술을 대접하였는데, 벽 위에 絕句 한 수가 君謨의 眞迹이었다.⁷⁵⁾

蔡襄의 문집에는 위의 시가 「夢遊洛中十首(有序)」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고 글자도 약간 차이가 있다.⁷⁶⁾ 이해를 돕기 위해 그 序를 읽어 볼 필요가 있다.

구월 초하루 나는 病暇 중이었는데, 낮잠을 자다가 꿈에 洛陽에 노닐다가 嵩陽居士를 만나서 집 벽에 시를 남겼다. 꿈에서 깬 뒤에도 오히려 두 句가 기억 나서 (나머지를 채워) 한 편을 완성하고, 그리움 속에 계속하여 총 열 수를 짓고, 太平 楊叔武께 부쳐 보여 드린다.⁷⁷⁾

그리고 第2句 뒤에 “夢中兩句”, 마지막 句 뒤에 “司門員外郎 王益恭은 사십여 세에 벼슬길에서 물러나 洛陽에 살고 있는데 스스로 嵩陽居士라 하였다.(司門員外郎王益恭, 年四十餘致政, 居洛中, 自號嵩陽居士.)”는 自註가 붙어 있다. 곧 이 書帖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낯설지 않은 “天際烏雲含雨重, 樓前紅日照山明.”은 蔡襄이 꿈속에서 지은 詩句인 것이다.

그리고 ‘定香橋店’과 ‘守居廨’는 이 帖이 발견된 곳에 대한 異說인데, 翁方綱은 하나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해 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⁷⁸⁾

75) “天際烏雲含雨重, 樓前紅日照山明. 嵩陽居士今何在, 靑眼看人萬里情.” 此蔡君謨夢中詩也. 僕在錢塘, 一日謁陳述古, 邀余飲堂前小閣中, 壁上小書一絕, 君謨眞迹也.”

76) 열 수 중에서 이 작품이 첫째 수이다. 문집에는 “嵩陽居士今何在”가 “嵩陽居士今安否何”로 되어 있다. 徐발等 編, 吳以寧 點校, 『蔡襄集』, 上海古籍出版社, 1996, 89면 참조.

77) 徐발等 編, 吳以寧 點校, 『蔡襄集』, 上海古籍出版社, 1996, 89면: “九月朔, 予病在告, 晝夢遊洛中, 見嵩陽居士, 留詩屋壁. 及寤, 猶記兩句, 因成一篇, 思念中來續爲十首, 寄呈太平楊叔武.”

78) 박현규, 위의 글, 274면.

“金籠雪衣確有指” 이하 네 句는 東坡가 남긴 시의 해석에 대한 문제이다.

「常潤 가는 길에 錢塘을 그리워하여 述古에게 부치다 常潤道中, 有懷錢塘, 寄述古五首」之二

풀들 자란 강남에는 꾀꼬리 어지러이 날아다니건만
근래 들어 일마다 마음과 어긋났네.
後院에 꽃 피었다 되려 부질없이 저버리고
제비는 華堂 들어가 돌아가지 않음 괴이하다.
세상 공명이야 어느 날에나 이를 것이며
술자리에서 점검해 보면 몇 사람이나 없는지.
작년에 버들개지 날리던 시절
金籠에서 雪衣를 풀어주던 것이 기억나네.⁷⁹⁾
草長江南鶯亂飛, 年來事事與心違.
花開後院還空落, 燕入華堂怪未歸.
世上功名何日是, 樽前點檢幾人非.
去年柳絮飛時節, 記得金籠放雪衣.

東坡는 “杭州 사람들은 비둘기를 풀어주어 太守의 長壽를 기원한다.(杭人以放鵠, 爲太守壽.)”는 自註를 달아 놓았기 때문에 종래에는 대체로 이를 문면 그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翁方綱은 『蘇詩補註』에서 「天際烏雲帖」의 후반부에 실린 杭州 妓女들의 시를 인용하며, 이는 妓生을 贖良해 준 것을 東坡가 文字로 狡猾한 것으로 풀이한 것이다.⁸⁰⁾

“施氏殘本歐體書” 뒤에 “宋槧本是 傳穉가 썼다.(宋槧本, 卽傳穉書.)”는 自註를 달았는데, 傳穉는 字가 漢孺로 湖州人이고 歐陽詢體를 잘 썼으며, 陸游와도 교분이 있었다고 한다.⁸¹⁾

마지막 네 句는 汪汝翰이 그려 준 紫霞小照와 관련이 있다.(圖版 4> 참조)

79) 馮應榴 輯注, 黃任軻·朱懷春 校點, 『蘇軾詩集合注』, 上海古籍出版社, 2001, 531~532면.

80) 馮應榴 輯注, 위의 책, 532면 참조. 분량 문제로 여기 다 옮기지 못하는데, 「天際烏雲帖」 후반부는 기녀들의 시 세 수와 기녀를 贖良해 준 故事가 실려 있다.

81) 衣若芬, 위의 책, 206면.

다만 옹방강이 東坡의 眞迹이라 굳게 믿었던 이 書帖에 대해 최근 들어 僞作으로 의심하는 학자들이 많아졌다고 한다.⁸²⁾ 필자는 이 논란에 참전할 식견이 부족하고, 이 논문 자체가 글씨의 眞僞를 가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의혹이 있음을 언급하는 선에서 멈추기로 한다.

한편, 옹방강만 자하에게 진귀한 서적과 서화를 보여 준 것이 아니었다. 자하 역시 가지고 간 董其昌의 「戲鴻堂臨古」와 安平大君의 眞蹟을 옹방강에게 보여 주고 審定을 받았으며, 이 사실을 시로 읊어 남긴 바 있다.⁸³⁾

2. 紫霞와 星原의 小照

石墨書樓에서 사귀 汪汝翰이 그려 준 紫霞의 小照는 그 畫軸이 온전히 潤松美術館에 소장되어 있으며, 오늘날까지 전하는 유일한 자하의 초상화이다.⁸⁴⁾(圖版 4) 翁方綱은 이 그림에 隸書로 ‘紫霞小照’를 써 주고 다음과 같은 題詩를 지었다.



〈圖版 4〉汪汝翰이 그린 紫霞 小照
『潤松文華』 71(韓國民族美術研究所, 2006), 40면

- 82) 衣若芬, 「天際烏雲含雨重: 『天際烏雲帖』」, 『書藝東坡』, 上海古籍出版社, 2019, 10면 참조.
- 83) 『奏請行卷』, 「題董文敏眞蹟帖, 覃溪審定題跋後」(『叢刊』 291, 19d) 및 「覃溪又跋余所携安平大君絹本眞蹟日, 此能以松雪手腕, 運聖教序筆意者, 眞確論也, 系以二絕句」(『叢刊』 291, 20b) 이 두 작품의 번역과 해설 및 그 의의에 대해서는 李炫壹, 『紫霞詩 研究』, 成均館大學校 漢文學科 博士學位論文, 2006, 218~223면 및 88~91면 참조.
- 84) 자하에게는 이밖에도 평양 출신의 李八龍이 그린 작품, 李命基와 金弘道가 합작으로 그린 작품이 있었다. 다만 세 점 모두 자신과 닮지 않았다고 불만이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현일, 「자하(紫霞)에 관한 몇 가지 일화」, 『문헌과 해석』 44, 문헌과해석사, 2008, 187~192면 참조.

淨慈寺에서 禪偈로 周邠에게 답하셨으나
周邠이 스스로 그린 초상화는 얻지 못하셨네.
소매 속 푸르른 雲海의 기운
篆香은 특별히 이 사람을 위해 보태주었네.
淨慈禪偈答周邠, 未得周邠自寫真.
袖裏青蒼雲海氣, 篆香特爲補斯人.⁸⁵⁾

옹방강은 마지막 귀 뒤에 “君은 坡公이 周長官에게 답한 시에 나오는 ‘淸風五百間’을 가지고 그 서재의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君取坡公答周長官詩淸風五百間, 以顏其齋故云.)”는 自註를 붙였다.⁸⁶⁾ 紫霞는 차운시를 두 수 지었다.

「옹담계가 내 小照에 쓴 시에 차운하다 次韻翁覃溪(方綱)題余小照(汪載青畫)」

老坡께서 周邠에게 답하신 禪偈에서
서재 이름 취하고 초상화를 그렸네.
문노니, 오백 간 중 몇 번째에
맑은 바람 깨끗이 청소하고 이 사람을 둘 것인가.

老坡禪偈答周邠, 取作齋名寫作真.
間五百間幾第榻, 淸風淨掃置斯人.

85) 『奏請行卷』(『叢刊』 291, 18c).

86) 馮應榴 輯注, 黃任軻·朱懷春 校點, 『蘇軾詩集合注』, 上海古籍出版社, 2001, 443~444면, 「病中獨遊淨慈, 謁本長老, 周長官以詩見寄, 仍邀遊靈隱, 因次韻答之」: “卧聞禪老入南山, 淨掃淸風五百間. 我與世疎宜獨往, 君緣詩好不容攀. 自知樂事年年減, 難得高人日日閑. 欲問雲公覓心地, 要知何處是無還.” 이 시에 대해서 류종목 역주, 『(정본완역) 소동파 시집』 2,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5면: “희령 6년(1073) 7월 항주(杭州) 정자사(淨慈寺)의 주지로 온 원조선사(圓照禪師) 중본(宗本)을 방문했는데 마침 전당현령(錢塘縣令) 주빈(周邠)이 시를 보내 영은사(靈隱寺)로 와서 함께 놀자고 했다. 소식은 해마다 즐거운 일이 줄어드는 터에 주빈과 함께 시를 지으며 노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도 않고 원조선사를 모시고 철학적 사색을 하는 모처럼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도 않아 잠시 갈등을 일으키다가 마침내 이 시를 지어서 주빈의 제의를 완곡하게 거절하였다.”(괄호 안의 漢字는 인용자가 추가함).

其二

나는 子瞻의 周邠인데

公과 子瞻은 어느 분이 幻이고 어느 분이 眞인가

幻인지 眞인지 바야흐로 정하지 못하는데

맑은 바람 자취 없고 본디 사람도 없네.

我應是子瞻之邠, 公與子瞻孰幻眞.

是幻是眞方未定, 淸風無迹本無人.⁸⁷⁾

東坡 시의 尾聯이 禪詩와 비슷한 것에 착안하여 紫霞 자신과 小照, 東坡와 翁方綱의 관계를 비유하며 시상을 전개해 나간 것이다.⁸⁸⁾ 畫軸에는 “嘉慶壬申孟冬朔 方綱.”이라는 글이 더 붙어 있어 1812년 10월 1일에 쓴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⁸⁹⁾

한편 이 畫軸에는 다른 자료에서는 전하지 않는 翁수곤과 김정희의 題詩도 함께 적혀 있다.

蘇齋의 雅集圖에 보태기 위하여서

西園의 米芾 글을 빌릴 필요 없으리라.

松濤 일어 맑은 바람 방안에 가득하니

書齋 이름 寶蘇를 증명하기 알맞구나.

爲補蘇齋雅集圖, 西園不借米書摹.

淸風一榻松濤起, 正合齋題證寶蘇.⁹⁰⁾

마지막 귀 뒤에 작은 글씨로 “학사는 家大人께 淸風五百間 다섯 글자를 편액으로 써 주시기를 구하였다.(學士求家大人書淸風五百間五字爲扁.)”는 自註를 보았으며, 아울러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87) 『奏請行卷』(『叢刊』 291, 18b).

88) 위에 인용된 東坡의 시 尾聯 참조. 東坡는 “『楞嚴經』云: ‘我今示汝無所還地.’”라는 自註를 달았다. 施註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楞嚴經』: 阿難言: ‘我心性各有所還, 別妙明元, 心何故無還?’ 佛告阿難: ‘今當示汝無所還地.’ 因答以八種無還.”이라 설명하였다. 이상 馮應榴 輯註, 위의 책, 444면.

89) 『澗松文華』 71(韓國民族美術研究所, 2006), 40면.

90) 위와 같음.

자하 학사가 蘇齋를 방문하였을 때 마침 좌중의 汪載靑이 小照를 그리고, 家大人께 부탁 드려 題詩를 받았으며, 아울러 小詩를 뒤에 부친다. 樹崑.⁹¹⁾

옹수곤의 題詩 뒤에는 다음과 같은 추사의 題詩가 실려 있다.

龍眠이 東坡의 초상 그리니
山谷이 일찍이 拜禮하였네.
보소서! 小蓬萊閣에서
香烟이 한 줄기 피어오름을.
龍眠畫坡像, 山谷曾拜之.
且看蓬萊閣, 香烟裊一絲.⁹²⁾

이어서 추사는 “추사 김정희가 小蓬萊閣에서 공손히 쓰다.(秋史金正喜恭題於小蓬萊閣中.)”는 글을 적어 넣었다. 첫 귀에 나오는 龍眠은 北宋 李公麟(1049~1106)이다. 이공린이 그린 東坡의 초상화에 黃庭堅이 절을 했다는 故事를 들어 자신도 이 小照에 향을 피우고 예를 올렸다고 말한 것이다.

자하의 小照가 청나라 문인들이 환영의 뜻으로 그려 준 것이라면, 옹수곤이 자하에게 보낸 小照는 자신의 근황을 전하고 題詩를 받기 위해서인 듯하다. 자하가 黃海道 谷山府使로 재임하던 시절의 작품을 수록한 『淸水芙蓉集』에는 바로 이듬해인 癸亥年(1813) 가을 겨울 무렵에 옹수곤과 汪汝翰이 보내 준 詩畫에 대해서 읊은 시 4題 6首가 잇달아 실려 있다.⁹³⁾ 그 중에서 옹수곤의 초상화에 쓴 시를 살펴보자.

「옹성원의 소조에 쓰다 題翁星原小照」 세 수 중 세번째

大江의 남북에서 名家로 손꼽히니
세상에서 둘째라면 서러워할 사람일세.
한결같이 實事에서 實是를 구했으며

91) “紫霞學士過蘇齋，適坐中汪載靑爲作小照，屬家大人題句，并付小詩於後。 樹崑。”

92) 『澗松文華』 71(韓國民族美術研究所, 2006), 40면.

93) 『淸水芙蓉集』, 「題翁星原小照」(3수), 「次韻答星原詠朝霞見憶」, 「次韻寄答星原感舊之作」, 「題汪載靑(汝翰)寄畫傲孫雪居畫幃」(『叢刊』, 291, 29d~30c).

재주를 사랑해서 사람까지 미쳤구나.
 부처·신선 유가·도가 어찌 따질 필요 있나
 霞·碧·星·秋 만남은 모두 勝因 덕분이라.
 성문 남쪽 대화하던 그 날이 생각나니
 높은 다락 술 취하여 봄날처럼 따뜻했지.
 名家屈指江南北, 肯作人間第二人.
 案事每能求案是, 憐才也復可憐身.
 佛仙儒老何常道, 霞碧星秋搃勝因.
 記得城南談讌日, 高樓酒重煥如春.⁹⁴⁾

모두 세 수 중에서 마지막 수이다. 앞의 두 수에서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온 벗의 小照를 보니 마치 대화하는 듯하다고 말하고, 자신들의 교유를 李白과 杜甫의 사림에 견주기도 하고, 옹수곤이 본래 情이 많고 恨도 많은 인물이라는 것을 본인의 말을 통해 알려 주고 있다.⁹⁵⁾

수련에서는 翁氏 가문이 중국에서 손꼽히는 가문임을 일컫고, 함련에서는 그 家學과 재주 있는 인물을 아끼는 태도를 칭찬하고 있다. 제3귀 뒤에 “‘실사구시’는 성원의 가학이다.(‘實事求是’是星原家學也.”라는 自註를 달아서 옹방강 가문의 학문적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⁹⁶⁾ 경련은 星秋霞碧 만남이 善因이 쌓인 덕분이라 말한 것으로, 제6귀 뒤 自註에서 “성원은 자신의 거처에 ‘星秋霞碧之齋’라는 편액을 달았으니, 가나 멈추나 앉으나 서나 잊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며, 아울러 세 벗의 유익함을 한 몸에 겸하려 한 것이다. 또 印章도 새겼다.(星原自榜其居曰星秋霞碧之齋, 行住坐臥, 用表不忘, 欲兼三友之益於一身. 又刻印章.)”고 더 자세히 설명하였다. 미련은 연경에서 만나던 날을 떠올린 것인데, 마지막 귀 뒤의 自註에서 “성원의 집은 前門 밖 保安寺 거리에 자리 잡았으며, 石墨書樓가 있었다.(星原家住前門外保安寺街, 有石墨書樓.)”고 추억하고 있다.

94) 『清水芙蓉集』(『叢刊』, 291, 29d).

95) 「題翁星原小照」三首之一: “萬里傳神如面晤, 江東渭北暮雲春.” 之二: “半生多病緣癡絕, 早識星原是恨人.” 앞의 귀에는 “星原有‘半生癡處是多情小印.’”, 뒤의 귀에는 “星原寄余書, 有‘僕本恨人’之語.”라는 自註를 달았다.

96) 이 自註는 底本에는 빠져 있으나, 東洋文庫 所藏 『警修堂詩選』에 의거하여 補入할 수 있다.

3. 紫霞의 墨竹과 覃溪의 ‘警修堂’·‘淸風五百間’ 扁額

燕京에서 옹방강-옹수곤 부자와 만난 지 세 해 뒤인 丙子年(1816) 가을에 자하는 옹방강이 자신의 墨竹에 지은 題詩에 화답하는 시를 지었다.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자하의 墨竹이 옹방강에게 전해졌고, 그림을 감상한 옹방강은 題詩를 지은바, 옹수곤이 부친의 시를 臨摹하여 자하에게 보내 주었다. 다만 자하가 이 시를 지은 시점은 이미 옹수곤이 세상을 떠난 뒤였다. 그러므로 이 시는 은연중 옹수곤을 애도하는 挽詩의 성격도 띠고 있다. 먼저 옹방강의 原韻부터 읽어 보자.

물가에는 碧玉 같은 숲이 우거지고
海東 山에 안개 끼고 달 떠올랐네.
淡墨으로 그린 靑鸞尾 같은 댓잎으로
맑은 바람 솔솔 부는 五百間을 쓸었으리.

碧玉林深水一灣, 烟橫月出海東山.
却憑淡墨靑鸞尾, 淨埽淸風五百間.⁹⁷⁾

“癸酉年(1813) 시월에 쓰신 것을, 甲戌年(1814) 人日에 臨摹하다.(癸酉十月題, 甲戌人日臨.)”는 말이 붙어 있어 아직 옹수곤이 건강하던 시절에 보내 준 것임을 알 수 있다.

앞의 두 귀를 살펴보면 물가의 대숲을 그린 것으로 보이며, 세 번째 귀의 靑鸞尾는 한 번의 붓질로 길게 친 댓잎을 비유한 말로, 자하의 서재 이름인 ‘淸風五百間’과 결부시켜 익살스럽게 표현한 것이다.⁹⁸⁾ 이제 자하의 작품을 읽어 보자.

97) 『蘓齋拾草』, 「追和覃溪題紫霞學士墨竹」 뒤에 붙인 「原韻」(覃溪)(『叢刊』 291, 53c).

98) 靑鸞尾는 電子版『四庫全書』를 검색해 보면 대나무 및 芭蕉, 萱花의 길쭉한 잎을 비유하는 데 쓰인다. 『珊瑚網』卷45, 「黃祿之傲趙松雪剔青地着色萱花」: “葉展靑鸞尾, 花開鵲嘴黃. 小庭多樹此, 相對使憂忘.” 『御定佩文齋廣群芳譜』卷4, 「鄭奎妻夏月詞」: “芭蕉葉展靑鸞尾, 萱草花含金鳳嘴. 一雙乳燕出雕梁, 數點新荷浮綠水. 困人天氣日長時, 鍼線慵拈午漏遲. 起向石榴陰畔立, 戲將梅子打鶯兒.” 댓잎을 묘사한 용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지만, 元代를 대표하는 화가인 倪瓚의 용례 세 개만 들어 둔다. 倪瓚, 『淸閨閣全集』卷3, 「題張氏縑竹軒」: “高軒自虛曠, 幽竹亦縑生. 苔石寒依玉, 風泉夜奏笙. 治冠輕可着, 醞酒綠因名. 好折靑鸞尾, 仙壇掃月明.”(侯妍文·葉子卿 點校, 『倪瓚集』, 浙江人民美術出版社, 2016, 56면) 같은 책, 「畫竹寄張天民」: “良常南洞口, 聞有掃塵齋. 竹影

「覃溪의 ‘紫霞學士의 墨竹에 쓰다’에 나중에 화답하다 追和覃溪題紫霞學士墨竹」

뉘라서 墨竹 갖고 龍灣을 건넜는지
홀연히 題詩가 象山에 이르렀지.
星原이 臨摹하던 모습을 상상하니
老萊衣 걸치고서 趨庭을 했겠구나.
誰携墨竹過龍灣, 忽見題詩到象山.
料得星原臨本日, 萊衣無恙鯉庭間.

其二

그리워함 어찌 한 물가에 그치리오
黃壚에서 고개 돌려 河山을 탄식하리.
만리나 떨어져서 무덤 볼 길 없어도
눈물은 書篋으로 줄줄 흘러 떨어지네.
豈止相思限一灣, 黃壚回首歎河山.
無緣萬里觀羸博, 雙淚汪汪墮篋間.

其三

어느 물가 仙遊갔나 물어 볼 곳 없으나
蓉城이 아니라면 海山에 가 있겠지.
紅豆가 평생 모은 그림 글씨 실은 배가
여기저기 팔리는 걸 건딜 수 있으려나.
仙遊無處問諸灣, 非主蓉城定海山.
紅豆平生書畫舫, 可堪沽賣落人間.

其四

黃河는 하늘에서 渤海로 흘러오고
四海에선 覃溪公을 산처럼 우러른다.
천 리 안에 한 굽이 없을 수 없겠으나

春當戶, 泉聲夜遶堦. 自矜霜兔健, 安有魯魚乖. 截得青鸞尾, 因風寄好懷.”(위의 책, 75면) 같은 책
卷7, 「題墨竹」: “燈下蕭蕭玉一枝, 吳松欲雪暮寒時. 憑君爲把青鸞尾, 大掃陰雲息怨恚.”(위의 책,
222면).

星原 네가 어찌하여 그 안에 들었느냐!
黃河天上滾來灣, 四海覃公共仰山.
千里不能無一曲, 星原奈汝當其間.⁹⁹⁾

첫 수의 마지막 귀 뒤에 “담계의 원시는 그림에 적혀 있으며, 성원이 손수 臨摹한 것이다.(覃溪原詩題在畫幀, 星原手臨一本.)”라는 自註로 설명한바, 자하의 墨竹은 石墨書樓에 소장되었을 것이다. 이어진 세 수는 모두 옹수곤을 추모하는 내용이다.

이듬해인 丁丑年(1817)에 자하는 연행을 떠나는 韓致應에게 옹방강이 자신의 小照와 墨竹에 쓴 題詩와 자신이 小照 시에 和韻한 시 2를 磁靑紙에 泥金으로 써 달라는 간청을 전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¹⁰⁰⁾

다음으로 자하가 庚辰年(1820) 9월에 覃溪가 써 준 ‘淸風五百間’과 ‘警修堂’ 편액 글씨를 雙鉤로 臨摹한 뒤 지은 작품을 읽어 보자. 아마도 글씨를 받고 잘 보관하다가 이때에 비로소 편액에 새기기 위해서 臨摹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새긴 편액 중에 ‘警修堂’ 편액은 다행히 지금도 남아 있다.(<圖版 5>)



〈圖版 5〉 警修堂 扁額(과천시 추사박물관 소장)

99) 『蘓齋拾草』(『叢刊』 291, 53c).

100) 『蘓齋續筆』, 「送韓勇山尙書(致應)賀至之行」八首之七: “小照題詩步韻成, 並原本揭證齋名. 磁靑紙上金泥字, 翔舞淸風五百楹.”(『叢刊』 291, 73b) 이 시 뒤에 다음과 같은 상세한 自註를 달았다. “覃溪老人前爲不佞題小照詩云 …… 不佞攀和云 …… 又得星原寄到老人題拙畫墨竹詩云 …… 仍取老人前後二詩並拙作, 揭之所居室中. 煩公此次, 以磁靑紙泥金, 致此區區諄諄於覃溪老人, 先用二幅, 寫老人二詩, 再用二幅, 繼寫拙詩二首歸, 作淸風五百間故事, 不勝企竚.”

「담계가 쓴 ‘청풍오백간’과 ‘경수당’ 편액을 雙鉤로 臨摹하고 기뻐하며 네 수를 쓰다 覃溪書淸風五百間、警修堂二扁、雙鉤摹成、喜題四首」之一、四

書法은 香光에 이르러서 폐단 극복 어려워져
모름지기 힘써서 무거운 빗장을 열어야 했네.
「烏雲帖」과 「化度寺碑」 잘 배워서 뛰어 넘고
僧度和 子敬을 규범으로 삼으셨네.
옛 法度 거두어서 黍米珠도 오묘하니
오늘날 사람들이 祕訣로 삼는다네.
雙鉤 뜰 때 경솔하게 눈만 믿어선 안 되는데
밝은 달에 정신이 번쩍 들어 손끝에 느낌 왔네.
書到香光掄敝難, 故須力幹一重關.
靑藍忠惠邕師際, 圭臬僧度子敬間.
古法收歸珠黍妙, 今人描作籥槃看.
雙鉤未可輕憑眼, 明月神來湧指端.

其四

特筆하신 ‘警修’는 金針으로 삼았으며
간곡한 堂記는 마음속에 새겼다네.
幽明을 달리한들 知己를 저버리랴
鋒鐫을 되돌려서 良箴 보듯 하였구나.
거듭해 鐵線銀鉤 臨摹하여 얻었으니
아침저녁 깊이깊이 삼가는 맘 부쳤구나.
扁額 걸면 九霞가 내려 온 듯 할 터인데
건축이 지체되어 함께 못 봄 부끄럽네.
警修特筆度金針, 堂記丁寧尙鏤心.
可是幽明負知己, 教回鋒鐫視良箴.
重摹鐵線銀鉤得, 茲寓朝乾夕惕深.
戶響九霞來髣髴, 愧遲椽屋共憑臨.¹⁰¹⁾

101) 『碧蘆坊藁(五)』(『叢刊』 291, 168a).

위의 시 수련과 함련은 明末 董其昌에 이르러 절정에 이른 書法을 다시 혁신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며, 옹방강은 이를 위해 東坡가 쓴 「天際烏雲帖」과 歐陽詢이 쓴 「化度寺碑」를 잘 배워서 靑出於藍하고 王徽之와 王僧虔을 법도로 삼은 것을 말한 것이다. 함련 앞 귀 원문의 忠惠는 蔡襄의 諡號인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天際烏雲帖」 맨 앞쪽에 蔡襄의 시가 실려 있으므로 당연히 「天際烏雲帖」을 가리킨다. 함련 뒷 귀 원문의 邕師는 「化度寺碑」의 全名이 「化度寺故僧邕禪師舍利塔銘」에서 연유한 것이다. 경련을 통해서 옹방강의 원래 필적이 黍米珠가 맺힐 만큼 먹을 풍성하게 구사했음을 알 수 있는데, 비록 書刻으로 재현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전하는 편액을 통해서도 이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는 있다. 미련은 臨摹할 때 밝은 달이 뜨면서 느낀 영감을 표현한 것이다.

아래 시는 ‘警修’의 의미를 생각하며 自省하면서 아직 건물을 완공하지 못한 아쉬움을 읊었다. 제2귀 뒤에 “堂記는 성원이 지어 주었다.(堂記星原作.)”는 自註를, 마지막 귀 뒤에 “堂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다.(堂尙未就也.)”는 自註를 달았다. 아쉽게 옹수곤의 이 글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곧 자하의 堂號인 ‘警修堂’의 글씨는 옹방강이 써 주고, 堂記는 옹수곤이 지어 주었던 것으로, 이 父子와 자하의 인연을 상징한다. 자하가 자신의 시문을 정리할 때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紫霞’나, 그보다 덜 알려졌지만 역시 자주 썼던 ‘養硯山房’, ‘碧蘆舫’ 등을 쓰지 않고 제목에 ‘警修堂’을 쓴 것은 분명히 이 인연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¹⁰²⁾

4. 뜻밖의 선물: 楊維禎의 山水畫

아직까지 『施注蘇詩』와 「天際烏雲帖」에 비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紫霞가 蘇齋의 만남에서 翁樹崑으로부터 元末 江南 詩壇의 盟主였던 鐵崖 楊維禎(1296~1370)의 山水畫를 증정 받은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¹⁰³⁾ 이 일이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통행본 『警修堂全藁』-『申緯全集』과 『韓國文集叢刊』 291-에

102) 물론 ‘養硯山房’과 ‘碧蘆舫’은 小集 이름에는 이미 사용한 바 있다.

103) 楊鐔, 『元詩史』, 人民文學出版社, 2003, 506~530면 참조. 같은 책, 506면에 따르면, 明代 王世貞의 『藝苑卮言』에 이미 이러한 의론이 있었다. 일본의 중문학자인 吉川幸次郎은 楊維禎을 ‘南方市民文學의 指導者’로 일컬었다. 吉川幸次郎, 『元明詩概說』, 岩波書店, 2006, 117~126면 참조.

錯簡이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 각 도서관에 소장된 『警修堂全藁』도 대부분 이러한
錯簡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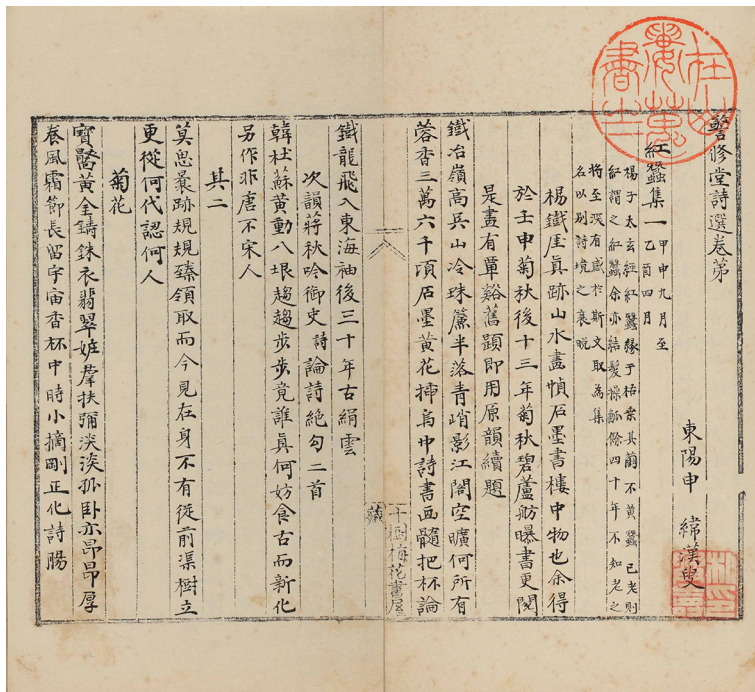
『警修堂全藁』의 小集 중 하나인 『紅蠶集(一)』에는 「양철애의 진적인 산수화 족자
는 석목서루의 물건이었다. 어제 풍고공이 강선루에서 지은 작품을 보니 곧바로 주몽
의 패업과 웅장함을 거를 만한 작품으로, 진실로 神來之筆이라 할 수 있으니, 후세의
具眼者는 마땅히 東坡의 두 賦와 견줄 것이다. 그 운에 의거하여 받들어 화운하다
楊鐵厓眞跡山水畫幀, 石墨書樓中物也, 昨讀楓臯公降仙樓之什, 直與朱蒙霸迹爭雄長,
眞傑然神來之筆也, 後有具眼者, 必媲美於坡公二賦, 依韻奉和」라는 제목의 시가 실려
있다.([圖版 6] 참조) 詩題에서 ‘楊鐵厓眞跡山水畫幀, 石墨書樓中物也’와 그 이하의
내용은 전혀 상통하지 않는다. 시의 내용을 검토해 보아도 ‘楊鐵厓眞跡山水畫幀, 石墨
書樓中物也’는 일종의 衍文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¹⁰⁴⁾



〈圖版 6〉奎章閣 所藏 研田本 『警修堂全藁·紅蠶集(一)』의 첫 장

104) 시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唐開國句驪邦, 形勝空餘雲霧恣. 赤鳥褰帷來放眼, 紅妝捧硯咏澄江.
千秋霸氣眞無敵, 一日文虹與作雙. 試覓周郎安所在. 浪淘不得筆如杠.”(『叢刊』 291, 252ab) 번역
은 李炫壹, 『紫霞詩 研究』, 成均館大學校 漢文學科 博士學位論文, 2006, 19면 참조.

필자는 예전에 이 점에 의문을 가지고 관련 자료를 찾던 중 성균관대학교 존경각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題畫詩抄』에 실린 『警修堂詩抄』에서 ‘楊鐵厓眞跡山水畫幀, 石墨書樓中物也’로 시작되는 작품을 찾기도 하였다.¹⁰⁵⁾ 또 최근 이용할 수 있게 된 일본 東洋文庫 所藏 『警修堂詩選』에도 이 작품이 온전히 실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圖版 7> 참조)



<圖版 7> 東洋文庫 所藏 『警修堂詩選·紅蠶集(一)』의 첫 장

<圖版 6>의 「楊鐵厓眞跡山水畫幀……」 이외에도 「次韻蔣秋吟御史(詩)論詩絕句二

105) 李炫壹, 『紫霞詩 研究』, 成均館大學校 漢文學科 博士學位論文, 2006, 19~21면 참조. 李炫壹은 이 부분의 錯簡의 有無가 수많은 『警修堂全藁』 필사본 중에서 善本을 가리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題畫類抄』에 대해서는 이현일, 「『警修堂詩抄』 해제」, 『韓國漢文學研究』 75, 韓國漢文學會, 2019, 427~429면 참조. 존경각본 『警修堂詩抄』는 『韓國漢文學研究』 75, 韓國漢文學會, 2019, 434~467면에 부록으로 영인되었다.

首」, 「菊花」 역시 통행본 『警修堂全藁』에는 누락된 작품들이다.¹⁰⁶⁾ 이제 작품부터 읽어 보기로 한다.

「楊鐵厓의 眞跡인 산수화 족자는 석묵서루에서 소장하던 것이다. 내가 壬申年 가을에 얻었는데, 십삼 년 뒤 가을에 碧蘆舫에서 책을 말리다 다시금 시와 그림을 보니 覃溪의 題詩가 있어 곧 原韻을 사용하여 題詩를 이어 짓다 楊鐵厓 眞跡山水畫幀, 石墨書樓中物也, 余得於壬申菊秋, 後十三年菊秋, 碧蘆舫曝書, 更閱詩畫, 有覃溪舊題, 卽用原韻續題」

鐵冶嶺 높디높고 吳山은 싸늘한데
푸른 산은 주렴 새로 반 너머 어리비쳐.
강 다락 비었으니 가진 것은 무엇인가
삼만 육천 이랑마다 연꽃 향기 그윽하다.
石墨書樓 찾아 간 날 烏巾에 국화 꽃고
詩書畫 精髓를 술잔 잡고 논했었지.
鐵龍이 東海 손님 소매로 날아들어
열세 해 지났어도 그림 속 구름 안에.¹⁰⁷⁾
鐵冶嶺高吳山冷, 珠簾半落青峯影.
江閣空曠何所有, 蓉香三萬六千頃.
石墨黃花插烏巾, 詩書畫髓把杯論.
鐵龍飛入東海袖, 後十三年古絹雲

얼핏 脚韻을 보면 七言絕句 두 수를 겹쳐 놓은 듯 보일 수도 있으나 古詩이다. 앞의 네 귀는 山水畫 속의 풍경을 묘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뒤의 네 귀는 石墨書樓에서 詩·書·畫의 精髓를 논한 인연을 말하고, 楊維禎의 그림이 자신의 소유가 된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翁方綱의 原韻은 다음과 같다.

106) 이 작품들 중에서 「次韻蔣秋吟御史(詩)論詩絕句二首」에 대해서는 이현일, 「紫霞 申緯의 「東人論詩絕句」 다시 읽기」, 『韓國漢文學研究』 83, 韓國漢文學會, 2021, 343~349면 참조. 東洋文庫 所藏 『警修堂詩選』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 자료센터(<http://kostma.korea.ac.kr/>) 홈페이지에 실린 이현일의 해제 참조.

107) 東洋文庫 所藏 『警修堂詩選·紅蠶集(一)』, 1ab.

「楊鐵崖山水卷」

鐵龍은 서늘해진 가을 강 精氣 마셔
半山이 어리비친 주름에 기대셨네.
강물 소리 날아드는 艸閣은 차디차고
옷소매엔 삼만 이랑 연꽃 향이 흠뻑 났네.
梅花의 夢幻 속에 華陽巾 쓰셨으니
畫家에서 그 누가 鐵體를 아울러 논할 것인가.
蓬萊의 月虹舫을 알아보겠으니
石篆壇 주변에서 白雲에게 禮 올리네.¹⁰⁸⁾
鐵龍精吸秋江冷, 峭倚珠簾半山影.
江聲飛入艸閣寒, 袖有蓉香三萬頃.
梅花夢幻華陽巾, 畫家誰並鐵體論.
識得蓬萊月虹舫, 石篆壇邊禮白雲.

제목 밑에 “‘老鐵 維楨이 그렸다.’고 스스로 썼다.(自題老鐵維楨作.)”는 自註를 붙였다. 이 시가 실린 『復初齋詩集』 卷58은 『石畫軒艸(一)』로 甲子年(1804) 8월에서 乙丑年 2월 사이에 지은 작품들이 실려 있다. 앞의 네 句를 보면 紫霞의 시에서 묘사한 바와 비슷하다. 아마도 강가에 草閣을 그린 그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秋史의 시집에도 이 그림을 읊은 작품이 한 수 실려 있다.

「그림을 紫霞에게 돌려보내며, 시를 쓰다 歸畫於紫霞, 仍題」

내 비록 그림을 알지 못해도
이 그림 좋다는 건 알 수 있겠네.
감상에 정밀하신 蘇齋 先生이
「烏雲帖」과 보배롭게 여기시다가
霞翁이 돌아감에 선물하시니
그 뜻은 참으로 은근하시네.
탄식하네, 老鐵이 그린 그림이

108) 翁方綱, 『復初齋詩集』 卷58, 12a(『續修四庫全書』 1455, 上海古籍出版社, 1455, 209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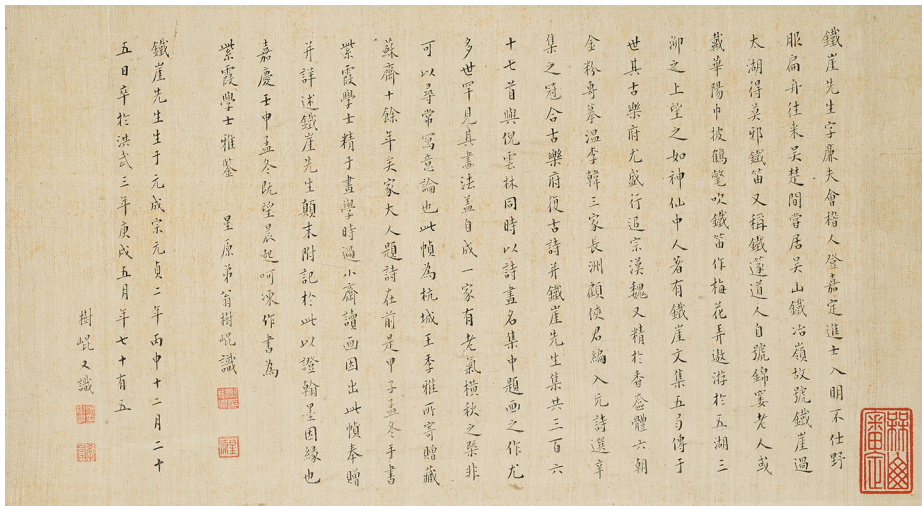
우리에게 처음으로 들어오다니!
星原은 붓끝이 쇠처럼 굳세
그 목숨 無量할 듯 보였건만
어찌하여 눈 한번 깜짝할 사이
曇花처럼 피었다가 사라지는가.
萬里 밖 그 사람이 古人 되니
그림을 만지며 눈물이 줄줄 흐르네.
星原이 세상 떠나서가 아니요
우리 墨緣 얹었기 때문이지요.¹⁰⁹⁾
我雖不知畫，亦知此畫好。
蘇齋精鑑賞，烏雲帖同寶。
持贈霞翁歸，其意諒密勿。
歎息老鐵畫，東來初第一。
星原筆鎔鐵，似若壽無量。
如何須臾間，曇花儵現亡。
萬里遂千古，撫畫涕忽泫。
匪傷星原死，吾輩墨緣淺。

이 그림을 한동안 빌려 보다가 紫霞에게 되돌려 주며 쓴 시로 판단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翁樹崑의 붓끝이 쇠처럼 단단하다고 언급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 그림 어딘가에 翁樹崑의 筆跡이 있어야 하는데, 그림의 소재를 알 수 없으니 추정에 그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작년 1월 코베이옥션 경매와 6월 칸옥션 경매에 翁樹崑이 쓴 동일한 題記가 연달아 출품되어 유찰되었는데, 덕분에 필자는 두 번 모두 현장에 가서 實査를 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圖版 8> 참조)¹¹⁰⁾

109) 『阮堂全集』 卷9(『叢刊』 301, 159c). 선뜻 도판 자료를 제공해 주신 칸옥션 고은비·고은솔님께 깊이 감사 드린다.

110) 코베이옥션 2021년 1월 제251회 삶의 흔적 경매, 출품번호 328. 칸옥션 2021년 6월 제19회 미술품 경매, 출품번호 032.



〈圖版 8〉楊維禎의 그림에 붙였던 翁樹崑의 題記(간옥선 제공)

글씨를 직접 보면 정말 鐵筆로 쓴 것처럼 힘이 있는데, 필자가 비록 書法에는 문외한이지만 僞作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판단된다. 翁樹崑 글씨가 그렇게 값이 나가는 것이 아닌데다가 紫霞가 石墨書樓에 가서 楊維禎의 산수화를 선물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鐵崖先生은 字가 廉夫이며, 會稽 사람으로, 嘉定 연간 進士에 급제하였다. 明 나라에 들어와서는 벼슬을 하지 않고, 野服을 입고 조각배를 타고 吳楚 사이를 왕래하였다. 일찍이 吳山의 鐵冶嶺에 살았기에 鐵崖로 호를 삼았다. 太湖에 갔다가 莫邪鐵笛을 얻어 또 鐵笛道人이라 일컬었으며, 스스로는 錦窰老人이라 일컬었다. 간혹 華陽巾을 머리에 쓰고, 學髦衣를 걸치고, 鐵簫을 불어 「梅花弄」을 연주하며, 五湖와 三泖에서 노닐기도 하였는데, 바라보면 마치 신선 같았다. 저서로 『鐵崖文集』 五冊이 세상에 전한다. 그 古樂府는 특히 성행하였으니, 거슬러 올라가 漢魏를 宗主로 삼았고, 또 香奩體와 六朝金粉에도 정통하였고, 溫庭筠, 李商隱, 韓偓 세 대가를 전문적으로 본땀다. 長洲 顧俠君이 『元詩選·辛集』의 으뜸으로 편입하여, 『古樂府』와 『復古詩』 및 『鐵崖先生集』을 합하여, 총 367수를 뽑았다. 倪雲林과 같은 시기에 시와 그림으로 이름을 떨쳤다. 그 중에서 題畫한 작품이 특히 많다. 세상에서 그 畫法은 매우 드물게 볼 수 있는데,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으며, 노련하고 자부하는 기개가 있으니,¹¹¹⁾ 평범한 寫意로 논해서는 안 된다. 이 그림은 杭城 王季雅가 기증한 것으로, 蘇齋에 소장한 지 십여 년이다. 家大人께서 앞에 題詩를 지으셨으니, 甲子年 孟冬에 손수 쓰셨다. 紫霞學士는 畫學에 정밀하여, 때때로 小齋에 와서 그림을 감상하였기에 이 그림을 내어 삼가 드리고, 아울러 鐵崖先生의 전말을 서술하여 여기 덧붙여 기록하여, 翰墨因緣을 인증한다.

嘉慶 壬申 孟冬 既望에 새벽에 일어나 먹물을 호호 불며 써서 紫霞學士께서 雅鑑하시도록 하는 바이다. 星原 아우 翁樹崑이 쓰다.¹¹²⁾

鐵崖先生은 元나라 成宗 元貞 2년 丙申 12월 25일에 태어나서 洪武 3년 庚戌 5월에 세상을 떠나셨으니, 나이가 일흔 다섯이셨다. 樹崑이 또 기록하다.¹¹³⁾

옹수곤이 쓴 楊維禎(1296~1370)에 대한 기술은 대체로 『元詩選』의 「小傳」을 토대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¹¹⁴⁾ 다만, 進士에 급제한 것을 ‘嘉定’ 연간이라 쓴 것은 ‘泰定’의 착오이다. ‘嘉定’은 南宋 寧宗의 연호로 1208년부터 1220년까지 사용하였고, ‘泰定’은 元 晉宗의 연호로 1324년부터 1327년까지 사용한바, 양유정이 進士에 합격한 해는 泰定 4년(1327)이다.¹¹⁵⁾

옹수곤의 題記에서는 자하가 畫學에 깊어서 이 그림을 증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양유정의 署名과 옹방강과 자하의 題詩가 있는 그림은 지금 소재가 묘연하다.

111) 『漢語大詞典』: “南朝齊孔稚珪「北山移文」: “風情張日, 霜氣橫秋.” 以霜氣充塞秋空形容人極其嚴肅的神氣. 後轉以“老氣橫秋”形容老練而自負的神態, 現多用以形容沒有朝氣或擺老資格.”

112) 翁樹崑의 題記: “鐵崖先生, 字廉夫, 會稽人, 登嘉定進士. 入明不仕, 野服片舟, 往來吳楚間, 嘗居吳山鐵冶嶺, 故號鐵崖. 過太湖, 得莫邪鐵笛, 又稱鐵笛道人, 自號錦餐(窩와 같은 뜻으로 쓴 듯)老人. 或戴華陽巾, 披學鰲, 吹鐵簫, 作梅花弄, 遨遊於五湖三泖之上, 望之如神仙中人. 著有『鐵崖文集』五弓, 傳于世. 其古樂府尤盛行, 追宗漢魏. 又精於香奩體六朝金粉, 專摹溫, 李, 韓三家. 長洲顧俠君編入『元詩選·辛集』之冠. 合古樂府復古詩并鐵崖先生集, 共三百六十七首. 與倪雲林同時, 以詩畫名. 其中題畫之作尤多. 世罕見其畫法, 蓋自成一派, 有老氣橫秋之概, 非可以尋常寫意論也. 此幀爲杭城王季雅所寄贈, 藏蘇齋十餘年矣. 家大人題詩在前, 是甲子孟冬手書. 紫霞學士精于畫學, 時過小齋讀畫, 因出此幀奉贈, 并詳述鐵崖先生顛末, 附記於此, 以證翰墨因緣也. 嘉慶壬申孟冬既望, 晨起呵凍作書, 爲紫霞學士雅鑑. 星原弟翁樹崑識.”

113) 翁樹崑의 追記: “鐵崖先生, 生于元成宗元貞二年丙申十二月二十五日, 卒於洪武三年庚戌五月, 年七十有五. 樹崑又識.”

114) 顧嗣立 編, 『元詩選』, 中華書局, 1994, 1975~1976면.

115) 『明史』 卷285, 「楊維禎傳」 참조.

전송되는 과정에서 분리되어 따로 상속받거나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그림의 보증서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록을 따로 떼어 내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인데, 미술품 시장이 척박한 우리나라에서는 종종 벌어지는 일로 보인다.¹¹⁶⁾

5. 추억의 鴛鴦鳥

주지하듯이 翁樹崑은 字가 星原으로, 秋史 김정희, 紫霞, 貞碧 유취관과의 우정을 기념하여 자신의 집을 ‘星秋霞碧之齋’라 일컬었다. ‘星秋霞碧之齋’의 인연과 관련하여 꼭 언급해야 할 古董이 鴛鴦鳥이라는 벼루이다. 자하는 추사를 통해 얻은 백제의 옛 터에서 나온 기와로 姜彝五에게 부탁하여 벼루를 만들었다. 이 벼루에 銘을 지어 새기고 鴛鴦鳥이라 이름 부쳤으며, 이를 정벽에게 기증한 바 있다. 자하를 따라 연행에 가서 翁수곤과 교유하게 된 정벽은 이를 翁수곤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러나 얼마 뒤에 翁수곤이 세상을 떠나고, 영영 잊혀진 물건이 된 이 벼루는 한 지인이 燕京에 갔다 그 탁본을 얻어 와서 자하에게 題詩를 청하게 되고, 이 사연이 紫霞의 詩로 남겨지게 되었다. 자하에게는 조선과 청나라의 두 벼-유취관과 翁수곤-을 동시에 그리워하게 하는 물건인 셈이다. 아쉽게 鴛鴦鳥 탁본은 전하지 않지만, 『警修堂全藁』에 작품이 수록되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된 『紫霞先生墨蹟帖』(동원3427)에 자하의 유려한 필치로 이 시가 실려 있다.

「‘鴛鴦鳥銘’ 뒤에 蕉硯이 붙인 시에 화답한 시 네 수 和蕉硯題鴛鴦鳥銘後詩四首(并序)」라는 흥미로운 작품으로 丁酉年(1837) 겨울에 지었다. 序 부분에 硯銘 및 벼루를 제작하고 주고받은 경위를 기록한 글, 蕉硯 韓培永이 탁본에 쓴 絕句 세 수가 수록되어 있다. 차례로 읽어 보기로 한다.

먼저 紫霞의 硯銘부터 살펴보자.

鴛鴦瓦가 鴛鴦鳥으로 변했으니
落花巖에 한 짝만 흘렀구나.

116) 작년에 어느 큰 미술품 경매에서는 金弘道와 李寅文의 松石園詩社의 雅會를 그린 그림이 상당히 높은 가격에 낙찰되었는데, 경매회사에 문의해 보니, 응당 함께 있어야 할 詩帖은 그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물결 위를 머뭇거렸으리니
故國의 일 어제인 듯해서라.
그 뒤로 천 년을 안개 끼고 달 뜬 밤
시인은 옛 역사 슬퍼하고 어부가 그물로 얻었도다.¹¹⁷⁾
鶯鶯瓦化爲鳥兮，落花巖遺一隻兮。
凌波兮亍，故國兮如昨。
後千年兮烟月夕，詩人憑吊兮漁人網得。

이어서 벼루의 내력을 기술한 부분이다.

이는 내가 辛未年(1811) 가을 秋史의 도움으로 百濟官瓦 하나를 얻어서 먹을
갈아보니, 바로 澄泥頂品이었다. 姜若山(姜彝五)에게 부탁하여 모양을 따라 鳥硯
으로 만들고, 마침내 鶯鶯鳥이라 이름 붙이고 이 銘을 새겼다. 貞碧이 (燕行 길
에) 들고 가서 星原에게 주었는데, 星原은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고, 벼루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고, 蕉硯이 우연히 硯銘의 拓本을 얻어, 그 뒤에 시를
썼다.¹¹⁸⁾

다음은 韓培永의 시이다.

갯신으로 模型 삼는 것도 오히려 우아하지 못한데
신발로 벼루를 이름 하니 더욱 더 유례없다.
半月城 주변에서 주웠다 하였으니
꽃잎처럼 투신했던 여인을 상상하네.
鞵以當杯尙不雅，鳥堪名硯更非倫。
爲從半月城邊拾，想到如花墮水人。

其二

기와 조각 만져 보다 遺跡임을 인식하고

117) 『祝聖七藁』(『叢刊』 291, 549a).

118) “此余辛未秋，因秋史得百濟官瓦一片試墨，乃澄泥頂品也。倩姜若山因形製爲鳥硯，遂命名鶯鶯鳥，刻以此銘。貞碧携贈星原，星原遊岱久矣，硯今不知其在亡也。蕉硯偶得硯銘拓本而讀之，作詩題其後曰 ……”

境에 因해 情이 이니 銘 또한 기이하다.
스물 한 곳 도읍을 회고하며 읍은 뒤에
물결 거닌 버선 위에 시를 이어 쓰노라.
摩挲片瓦認遺跡, 因境生情銘亦奇.
二十一都懷古後, 凌波襪上補題詩.

其三
漢代에 開國하여 唐代에 망한 百濟
천 년 세월 기와는 다시 天然 벼루 됐네.
紅豆가 세상 떠서 눈물을 뿌렸으니
蘓齋의 翰墨緣이 문혔기 때문이라.
唐漢歸來百濟國, 瓦千年更硯天狀.
淚彈紅豆飄零日, 埋沒蘓齋翰墨緣.

한배영의 시에 次韻하는 작품을 짓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을 듯한데,
자하는 脚韻은 따르지 않고, 뜻에만 화답하여 絕句 네 수를 지었다.

百濟城 싸늘하고 초목은 황량한데
낙화암에 흘린 신발 鴛鴦으로 변하였네.
벼루 감 마땅한지 발끝으로 시험했나
吳나라 땅 顧二娘이 떠오르네.
百濟城寒草木荒, 落花巖鳥化鴛鴦.
硯材曾否鞣尖試, 喚起吳閭顧二娘.

其二
石癖있던 星·霞·碧은 우정이 굳었는데
蕉硯은 어디에서 옛 인연을 찾아 왔다.
‘鴛鴦鳥’ 새긴 글씨 ‘瘞鶴銘’과 같건마는
이끼 걷고 느껴워 할 시인이 몇 이런가.
蘭盟石癖星霞碧, 蕉硯從何證夙因.
銘刻鴛鴦同瘞鶴, 剔苔憑吊幾詩人.

其三

千古의 興亡 속에 너를 어찌 하겠느냐
만달 걸린 옛 城에서 漁歌에 부쳤노라.
우습다! 내 이십칠 년 사이의 일
원앙이 날아간 뒤 거위 새로 얻었구나.
千古興亡奈爾何, 城留半月付漁歌.
嘻余廿七年間事, 飛去鴛鴦籠得鵞.

其四

내가 새긴 銘을 읽다 묵은 꿈이 떠오르니
갈대 핀 물가의 맑은 바람 오백 간이라.
옛 기와 손에 쥐고 벼루 모양 헤아린 것이
學士로서 弘文館에서 퇴근한 뒤였지.
我讀我銘喚宿夢, 清風五百蘆之漪.
手持古瓦量埴膊, 學士弘文下直時.

첫 수에 대해서는 “吳門 顧二娘은 가죽신 끝으로 돌의 좋고 나쁨을 알 수 있었으니, 사람들이 顧小足이라 일컬었다.(吳門顧二娘, 能以鞣尖試石之好醜, 人故以顧小足稱之.)”는 自註를 달았다. 세 번째 수의 끝에는 “내가 최근에 鵞硯을 얻어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近余有鵞硯詩故云.)”고 표현한 경위를 밝혔다.¹¹⁹⁾ 네 번째 수의 마지막句 뒤에는 “辛未年(1811) 가을 겨울에 나는 弘文館에 근무하고 있었다.(辛未秋冬, 余在館職.)”라 하였다. 실제로 위에서 본 『施注蘇詩』의 拜觀記에도 ‘弘文學士’임을 밝히고 있다.

IV. 餘論

마지막으로 자하와 청나라 문인들의 교유가 갖는 의미를 세 가지만 더 서술하려고

119) 이 벼루는 栳溪 尹定鉉(1793~1874)에게 얻은 것으로 보인다. 『祝聖七藁』, 「尹栳溪(定鉉)書童金光錫贊詩來謁, 且以唐製小鵞硯携示」(『叢刊』 291, 548d) 참조.

한다.

첫째, 華國 시인으로서의 위상이다. 자하보다 대략 20여 년 뒤에 燕行했던 星沙 姜時永(1788~1868)은 李尙迪와 함께 吳嵩梁을 방문하고 함께 나눈 대화를 자신의 연행록에 기록한바, 그 중에서 자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다.¹²⁰⁾

수레를 타고 宣武門으로 나가서 土地廟 앞에 있는 吳蘭雪의 거처를 방문하였다. 蘭雪의 이름은 嵩梁이고, 號는 澈翁이며, 江西省 東鄉人이다. 지은 시가 萬首라 일컬어졌다. 葉東卿(인용자-葉志詵)과 同門이며, 現任 貴州省 黔州知州이다. 듣성듣성한 눈썹에 淸秀한 모습이 맑게 비추었으며, 수염과 머리털이 약간 희끗희끗하였다. 자리를 마주하고 筆談을 하였는데, 詩文을 논함에 들을 만한 내용이 많았다. 茶果를 갖추어 대접해 주었다. 사방의 벽에 題詠이 매우 많았으니, 사람들과 酬唱한 작품들이었다. 『香蘇山館詩鈔』一匣을 꺼내어 보여 주었는데, 바로 자신의 시집이었으며, 고향 사람인 顧純이 간행한 책이다. 시는 과연 淸警濃熟하여 다듬은 흔적이 없었다. 또 이렇게 말하였다. “東國 詩人들 중에서 金秋史 正喜와 申紫霞 緯는 모두 雋才이며, 일찍이 시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紫霞詩는 반드시 후세에 전해질 것인데, 이미 간행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¹²¹⁾

120) 姜時永은 姜淩欽의 아들이며, 자하는 父子와 모두 교유가 있었다. 『養硯山房藁(三)』, 「姜溟翁承旨乞暇, 往哲嗣(時永)殷栗任所, 將入文化之九月山也, 臨行索詩, 爲賦此: “沐浴老臣天賜暇, 晨昏太守日趨庭. 名山崢嶸秋冬際, 瑤嶼平臨大小青.(原註: ‘西海有大青, 小青二島. ’) 箴竹飛行勝駕鶴, 硯池豪縱欲吞溟. 送君可羨殊非一, 黃葉林扉手自扃.”(『叢刊』 291, 414cd) 『覆韻集(十)』, 「送姜錦伯(時永)」: “棠花先公去益詠, 錦城六十一年回. 送君此地無由羨, 奈我衰齡又乏才. 庾亮南樓明月在, 蘓仙赤壁大江來. 民殘吏橫今非昔, 往矣勞心費力哉.”(『叢刊』 291, 634d) 참조. 강준흠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이현일, 『삼명시화(三溟詩話)』로 본 18세기 한시사(漢詩史), 『민족문화사연구』 27, 민족문화사연구소, 2005 참조.

121) 姜時永, 『軒軒續錄』卷3, 庚寅(1830) 正月 二十七日: “登車由宣武門出, 訪土地廟前吳蘭雪所居. 蘭雪名嵩梁, 號澈翁, 江西省東鄉人. 有萬首詩名, 葉東卿之同門, 生現任貴州省黔州知州. 疎眉玉骨, 淸瑩照人, 鬚髮畧有白者. 對榻筆談, 論詩論文, 多有可聽. 畧具茶果以相接. 四壁題詠甚多, 則與人酬唱者. 出示『香蘇山館詩鈔』一匣, 乃其詩集, 而爲同鄉人顧純所刊者. 詩果淸警濃熟, 無斧鑿痕. 且曰: ‘東國詩人如金秋史正喜, 申紫河(인용자-紫河는 紫霞의 誤記)緯, 皆雋才, 而嘗有往復. 若紫霞詩, 必當傳後, 未知已爲入梓刊行否?’(姜箕錫 編, 『軒軒續錄』, 探究堂, 1994, 250~251면) 이 연행록 전체의 번역은 강시영 지음, 강인구 옮김, 『軒軒續錄』, 도서출판 한모임, 2010을 참조할

오송량은 자하에게 직접 보낸 글에서도 이와 유사한 언급을 한 적이 있다.¹²²⁾ 연행 이후 상당히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간접적인 교류를 유지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聲價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이보다 15년 뒤인 1855년 進慰進香使의 書狀官으로 燕行한 澹人 申佐模(1799~1877)는 甲子年(1864) 역시 서장관으로 燕京에 갔다 귀국한 雨田 鄭顯德(1810~1883)에게 부친 시에서 “시라면 燕京 사람 모두 자하를 말하고, 글씨로는 추사를 특별히 애호한다”고 언급할 정도였다.¹²³⁾ 이때는 이미 자하가 세상을 떠난 뒤인데, 1812년 연행 뒤로도 반세기 가까이 중국에서 조선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인정받았던 것이다.

둘째,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遺物 교류의 측면이다. 자하는 자신이 수집한 古董을 연작시로 읊은 「서재 안에 있는 여러 기물들을 읊음(齋中詠物三十首)」을 남긴 바 있다.¹²⁴⁾ 이 시에 나오는 器物들은 李裕元의 『林下筆記』 卷34에도 ‘覃齋中物出東方’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는데, 李裕元은 『警修堂全藁』에는 없는 기록을 덧붙인 바, 紫霞가 읊은 器物 중에 商乙父鼎, 漢玉璫, 蟻鼻泉, 宋銅東西, 宣德醺壇小爐, 成化印色盒, 硯蓋天然如意玉, 綠玉香, 佩文齋松花石硯, 貨布式硯, 投壺式牙色古瓷, 西施乳, 頂品花瓷淺, 天青色雙璃耳大壺, 鍾式水中丞, 金粟山藏經紙, 竹秘閣, 斑竹筆筒, 渾身梅花水沈筆筒羅兩峯(聘)物, 象牙茶盤은 翁方綱으로부터 나온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¹²⁵⁾

수 있다. 이 자료는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院의 林映吉 博士의 도움으로 찾을 수 있었다. 깊이 감사드린다. 紫霞詩에 대한 오송량의 이와 같은 언급은 李春姬, 『19世紀 韓·中 文學交流』, 새문사, 2009 119~120면에서는 李尙迪과 趙秀三이 찾아갔을 때 나는 필답에서 보인다고 하였으나, 따로 인용한 자료를 밝히지 않았다.

122) 吳嵩梁은 紫霞詩의 神韻과 格力を 인정하고, 충분히 自成一家할 만하여 그 造詣가 옛 시인들과 겨룰 만하다는 글을 보낸 것은 자하의 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철상, 「紫霞 申緯의 燕行과 翁方綱의 영향」, 『韓國漢文學研究』 75, 韓國漢文學會, 2019, 84~86면 참조.

123) 申佐模, 『澹人集』 卷6, 『梅社舊雨集』, 「復疊, 寄東還三行人雨田鄭學士(顯德)」: “詩盡燕人說紫霞, 書於秋史愛欽斜. 春雲澹蕩渾成錦, 古木離奇不用花. 日域行人三絕藝, 雪樓才子幾名家. 年年紙貴金臺下, 無恠東韓號小華.”(『叢刊』 309, 331d) 이 자료는 임영길, 「紫霞 申緯와 청 문단의 교류 양상-1812년 연행 이후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2021, 141면, 각주 72)에서 처음 확인할 수 있었다.

124) 『警修堂全藁·碧蘆舫藁(三)』. 이현일, 「조선후기 고동완상의 유행과 자하시」,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19세기 조선 지식인의 문화지형도』,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6, 168~175면 참조.

125) 자하가 직접 출처를 언급한 器物은 商乙父鼎이 유일하다. 『碧蘆坊藁(三)』, 「齋中詠物三十首」

『林下筆記』 자체가 소소한 오류가 많아 그대로 다 믿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아주 무시할 수도 없다. 일정 부분은 옹방강·옹수곤父子로부터 선물 받았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된다.

세상에 받기만 하고 주는 것이 없는 관계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翁方綱이 세상을 떠나기 한 해 전인 丁丑年(1817)에 紫霞가 翁方綱에게 보낸 시가 주목된다.

「覃溪老人께 부쳐 보여 드리다 寄覃溪老人」

예전에 星原과 金石 약속 맺었으나
수레가 배 위를 지나는 듯 아파도 입은 비석 문 듯.
「鑿藏寺碑」처럼 崇자의 山을 점 셋으로 썼으니
「蘭亭續攷」 쓰실 때 참고하시라 보내 드립니다.
舊有星原金石諾, 車過腹痛口含碑.
鑿藏一樣崇三點, 送備蘭亭續攷詩.

其二

粉靑에 花朵 새겨 高麗瓷器임을 알아볼 수 있으니
풀 베다 金釵 주을 때 아울러 얻었다고 합니다.
蘓齋에 古董이 부족하다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海邦의 風物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粉靑花朵辨高麗, 並拾金釵薙草時.
非謂蘓齋彝器乏, 海邦風物要知之.

其三

『復初齋集』은 原刻 및 續刻이 있고
蘇詩에 補注하시느라 더욱 고심하셨지요.
오가는 사신 편에 시집을 보내 주신다면
白居易 문집이 鷄林에 온 것과 견주어 어떠할까요.¹²⁶⁾

중 「商乙父鼎」: “宣和殿裏物, 易水李氏傳. 何以辨贗銅, 視此色天然.”(『叢刊』 291151cd) 詩題 아래 “『博古圖』中物也.”라는 自註를 제2귀 뒤에 “李常泰, 字伯符. 北平翁氏得於易水李氏, 余得於翁氏.”라는 自註를 붙였다.

復初寶笈原兼續，補注蕪詩更苦心。
倘得鄴籤隨鴈使，爭如白集到鷄林。

첫 수에 대해서는 “성원이 연전에 『海東碑目』 한 권을 주고 나에게 비석을 찾아 달라고 부탁했다. 이 일을 추억하여 「高麗國圓應師碑」로 실친하였다. 담계가 지은 「蘭亭攷」에서 崇字의 山 부분을 「山」을 세 개의 점으로 찍은 것을 「新羅鑿藏寺碑」로 증거를 삼았다.(原註: “星原前以『海東碑目』一卷，屬余訪碑，追憶此事，以「高麗國圓應師碑」踐言。覃溪所著「蘭亭攷」崇字三點，引新羅鑿藏寺碑爲證。)”는 自註를 달았다. 곧 자신이 보내는 「高麗國圓應師碑」 탁본은 응수근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며, 이 비 역시 「蘭亭序」처럼 崇자의 山을 점 세 개를 찍어 표현하였으니, 「蘭亭攷」의 속편을 쓸 때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다.

둘째 수에 대해서는 “高麗鑿 한 점은 고려시대 궁전터인 滿月臺에서 얻은 것이다. 粉靑이니 花染니 하는 묘사는 『格古要論』에 나온다.”는 自註를 붙였다. 곧 고려청자를 보내며 이는 중국 감상가들이 지침서로 삼는 『格古要論』에도 나오는 연원 있는 물건이라는 뜻이다.

셋째 수는 翁方綱이 『復初齋集』을 보내 준다면 白居易의 문집이 新羅에 전해진 것 못지않은 盛事가 될 것임을 말하며 문집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¹²⁷⁾

자하가 燕行을 떠날 때, 당시 개성 출신으로는 가장 성가가 높았던 시인인 韓在瀛은 紫霞를 송별하는 시에서 자하가 옛 것을 좋아하여 고려 시대 자기와 백제 기와들이 한 집에 가득하다고 하였다.¹²⁸⁾ 고려자기나 백제 기와를 중국에 보낸 것은 일종의 ‘문화재 유출’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집안에 고려자기와 백제 기와가 산처럼 쌓였다면 한 두 점 정도는 선물로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당시의 翰墨緣은 詩文의 교환뿐만 아니라 書畫와 古董에까지 미치고 있었

126) 『蘇齋續筆』(『叢刊』 291, 74c).

127) 紫霞가 『復初齋集』을 구하기 위해 애쓴 내력은 박철상, 위의 글, 75~82면에 자세하다.

128) 韓在瀛, 『西原家稿·心遠堂詩少』, 16b, 「奉送紫霞太史」: “(前略)吾觀紫霞公，嗜古無與伍。麗磁及濟瓦，並蓄充棟宇。(後略)” 자하는 본래 燕行을 떠나게 되면 한재림의 형인 韓在洙와 함께 가기로 약속하였으나, 자하의 燕行이 결정되고 나서 곧 한재수의 訃音이 도착했다고 한다. 그래서 대신 동행한 사람이 貞碧 柳最寬이다. 이현일, 「心遠子 韓在瀛 시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56, 민족문학회, 2014, 245~246면 참조.

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좀더 자세한 사항들은 이어지는 논문으로 미루려고 한다.

셋째, 서화나 서책, 고동이 매개가 된 교유였지만, 밀바탕에는 따뜻한 情이 깔려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성원이 아침노을을 읊으며 추억한 시에 차운하여 답하다 次韻答星原詠朝霞
見憶」

아침노을 저녁노을 무엇이 더 아름답나
아침저녁 빛을 흘러 만 리를 돌아드네.
나 본래 몸 없으니 어떻게 손에 쥐랴
바람 따라 生滅함을 이상하게 생각 말게.
朝霞何似暮霞好, 朝暮流輝萬里迴.
我本無身安有觸, 隨風起滅莫相猜.¹²⁹⁾

아름다운 아침 노을[霞]를 보고 문득 紫霞가 그리워져서 지어 보낸 시에 次韻한 작품으로, 마치 철틀로 쓴 듯한 굳센 글씨로 題記를 써 준 응수곤에 비해, 통달한 사람인 양 시를 남긴 자하가 먼저 세상을 떠날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앞에서 살펴본 「黃葉懷人圖」에 쓴 題詩의 경우에도 그 긴 작품을 일관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그리움이다. 이러한 주제는 談草나 燕行錄보다 시로 더 잘 표현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투고일: 2022.02.10

심사일: 2022.03.01

게재확정일: 2022.03.21

129) 『淸水芙蓉集』(『叢刊』 291, 30b).

참고문헌

- 申緯, 『警修堂全藁』 16冊(奎章閣 古 3447-27. 孫八洲 編, 『申緯全集』(전4책), 太學社, 1983)
申緯, 『警修堂全藁』 29冊(藏書閣 4-5735. 『叢刊』 291)
_____, 『警修堂詩抄』(成均館大學校 尊經閣 所藏 『題畫類抄』 수록), 『韓國漢文學研究』 75, 韓國漢文學會, 2019
- 『澗松文華』 71, 韓國民族美術研究所, 2006
『歐陽詢化度寺碑』, 上海書畫出版社, 2001
『文心과 文情』, 孔畫廊, 2010
『蘇軾天際烏雲帖』, 上海書畫出版社, 2002
- 姜時永 著, 姜箕錫 編, 『輶軒續錄』, 探究堂, 1994
_____, 강인구 옮김, 『輶軒續錄』, 도서출판 한모임, 2010
金正喜, 『阮堂全集』(『叢刊』 301)
申佐模, 『澹人集』(『叢刊』 309)
李尙迪, 『恩誦堂集』(『叢刊』 312)
韓在濂, 『心遠堂詩抄』(국립중앙도서관 所藏 『西原家稿』에 수록)
- 『註東坡先生詩 精選集』, 大塊文化, 2018
顧嗣立 編, 『元詩選』, 中華書局, 1994
孔尙任 著, 謝雍君·朱方邇 評注, 『桃花扇』, 中華書局, 2020
공상임 지음, 이정재 옮김, 『桃花扇』, 을유문화사, 2008
董其昌 著, 屠友祥 校注, 『畫禪室隨筆』, 上海遠東出版社, 1999
徐발等 編, 吳以寧 點校, 『蔡襄集』, 上海古籍出版社, 1996
蕭統 編, 李善 注, 『文選』, 上海古籍出版社, 1997
吳在慶 撰, 『杜牧集繫年校注』, 中華書局, 2008
翁方綱, 『復初齋詩集』(『續修四庫全書』 1455, 上海古籍出版社)
류종목 역주, 『(정본완역) 소동파 시집』 2,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劉學鍇·余恕誠 著, 『李商隱詩歌集解』, 中華書局, 1996
馮應榴 輯注, 黃任軻·朱懷春 校點, 『蘇軾詩集合注』, 上海古籍出版社, 2001
侯妍文·葉子卿 點校, 『倪瓚集』, 浙江人民美術出版社, 2016
和寧 原著, 池萬興·嚴寅春 校注, 『西藏賦校注』, 齊魯書社, 2013

- 김명호, 『홍대용과 항주의 세 선비: 홍대용의 북경 기행 새로 읽기』, 돌베개, 2020
- 안대회 교감역주, 『(정본완역) 북학의』, 돌베개, 2013
- 李春姬, 『19世紀 韓·中 文學交流-李尙迪을 중심으로-』, 새문사, 2009
- 임기증, 『증보판 연행록 연구』, 일지사, 2006
- 조구백, 『한국한문학에 끼친 소동파의 영향』, 명문당, 2016
- 吉川幸次郎, 『元明詩概説』, 岩波書店, 2006
- 藤塚鄰 著, 『清朝文化東傳の研究』
- _____, 朴熙永 譯, 『추사 김정희 또다른 얼굴』, 아카데미하우스, 1994
- _____, 윤철규·이충구·김규선 옮김, 『秋史 金正喜 研究』, 과천문화원, 2009
- 楊鐔, 『元詩史』, 人民文學出版社, 2003
- 衣若芬, 『書藝東坡』, 上海古籍出版社, 2019
- 琴知雅, 「朝鮮 申緯의 『奏請行卷』 研究-燕行과 翁方綱과의 文墨緣을 중심으로-」, 『洙上古典研究』, 洙上古典學會, 2005
- 김기완, 「한중교유와 19세기 거주지 재현 예술」, 『韓國漢文學研究』 51, 韓國漢文學會, 2013
- _____, 「추사 일파의 초상 題贊 운문 연구」, 『洙上古典研究』 72, 洙上古典研究會, 2020
- _____, 「추사 일파의 초상 題贊 운문 연구 (2)-외모기술과 肖像畫觀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52, 한국고전학회, 2021
- 박철상, 「紫霞 申緯의 燕行과 翁方綱의 영향」, 『韓國漢文學研究』 75, 韓國漢文學會, 2019
- 박종훈, 「조정 박제가의 懷人詩 小考」, 『한국언어문화』 30, 한국언어문화학회, 2006
- 박현규, 「청 翁方綱 소장 蘇軾 「天際烏雲帖」과 조선 申緯의 結緣」, 『한중인문학연구』 12, 한중인문학회, 2004
- 신일권, 「신위의 청나라 연행 이후에 나타난 시의 특징-고증적 성향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64, 한국문화학회, 2013
- 안대회, 「楚亭 朴齊家の 燕行과 일상 속의 국제교류」, 『東方學志』 145, 延世大學校 國學研究院, 2009
- 林映吉, 「玉壺 李肇源의 『燕薊風煙』과 한중 문인 교유」, 『漢文學論集』 57, 槿域漢文學會, 2019
- _____, 「洪顯周와 淸 문단의 神交와 그 의미」, 『東方漢文學』 87, 동방한문화회, 2021
- _____, 「紫霞 申緯와 청 문단의 교유 양상—1812년 연행 이후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116,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2021
- 이춘희, 「道咸 연간의 대가 祁寯藻와 조선 문인 李尙迪의 교류」, 『韓國漢文學研究』 57, 韓國漢文學會, 2015
- 이현일, 「『三溟詩話』로 본 18세기 漢詩史」, 『민족문학사연구』 27, 민족문학사연구소, 2005

- _____, 「조선후기 고동완상의 유행과 자하시」,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19세기 조선 지식인의 문화지형도』,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6
- _____, 『紫霞詩 研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6
- _____, 「紫霞에 관한 몇 가지 일화」, 『문헌과 해석』 44, 문헌과해석사, 2008
- _____, 「조선후기 경화세족의 이상적 여성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 _____, 「조선후기 京華世族의 東坡 수용 양상」, 『中國文學』 62, 한국중국어문학회, 2010
- _____, 「19세기 漢詩의 小品趣-申緯의 경우를 중심으로」, 『韓國漢詩研究』 18, 韓國漢詩學會, 2010
- _____, 「六橋 李祖默 詩 研究」, 『東洋學』 55,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院, 2014
- _____, 「心遠子 韓在濂 시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56, 민족문학사학회, 2014
- _____, 「錦齡 朴永輔의 初期詩에 대하여 - 『雅經堂詩初集』을 중심으로」, 『韓國漢詩研究』 25, 韓國漢詩學會, 2017
- _____, 「紫霞 申緯의 漢詩史的 位相과 文藝觀」, 『韓國漢文學研究』 75, 韓國漢文學會, 2019
- _____, 「『警修堂詩抄』 해제」, 『韓國漢文學研究』 75, 韓國漢文學會, 2019
- _____, 「紫霞 申緯의 「東人論詩絕句」 다시 읽기」, 『韓國漢文學研究』 83, 韓國漢文學會, 2021
- 정민, 「19세기 동아시아의 慕蘇 열풍」, 『韓國漢文學研究』 49, 韓國漢文學會, 2012
- 정은주, 「1812년 진주검주청사행과 한중목연-자하 신위와 정벽 유취관을 중심으로」, 『다산과 추사, 정벽 유취관』, 추사박물관, 2015
- 정일남, 「朴齊家 懷人詩 研究」, 『韓國漢文學研究』 36, 한국한문학회, 2005

Shin Wi's Companionship with Qing Dynasty Literati (1)

Lee, Hyun-il

Shin Wi(申緯) was the most influential poet in 19th Century Chosun Dynasty. He is also known as an outstanding poet in China. And he was a man of three perfections-poet, calligrapher, and painter.

In his period, it was common that literati of Chosun had companionship with Qing Dynasty literati. Especially through travel to Beijing as an envoy(燕行), they took a choice for it. Their acquaintance didn't just build friendships, but created a new world that made by poetry, calligraphies, paintings and variety of antiques.

This paper is intended as the first in a series of papers dealing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Shin Wi and Qing Dynasty literati.

In this paper, First of all, I took a close look at Shin Wi's Poem on a picture of longing for friends in autumn leaves, by dividing them into paragraphs. Because this work was originally written for Lee Sangjeok(李尙迪), but comprehensively contained the companionship of Shin Wi and Qing dynasty literati.

And I especially focused on companionship with Weng Fanggang(翁方綱)and Weng Shukun(翁樹崑). Weng Fanggang was an eminent scholar, and he was famous for his calligraphy, and had a deep knowledge of inscriptions on bronzes and stones. He also was one of important poetic theorist and critics. Weng Shukun was his son.

Weng Fanggang did a favor for Shin Wi and showed him rare book and calligraphy work. Shin Wi exchanged a lot of poems, prose, and calligraphy works with Weng Fanggang and Weng Shukun.

Key Words : Shin Wi(申緯), Lee Sangjeok(李尙迪), Weng Fanggang(翁方綱), Weng Shukun(翁樹崑), Travel to Beijing as an envoy(燕行)